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6호  
2022년 4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 화학 '영재'에서 현대음악의 '별'이 된 김택수 동문



지난 2020년 1월 김택수 동문(자연대·음대 99)의 신작 '스핀 반전(Spin-Flip)'을 조연한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난 뒤 김 동문이 청중들에 인사하고 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김 동문은 서울대 화학과에 진학했으나 졸업 후 음대로 편입, 작곡의 길로 들어서 미국 현대음악계의 '떠오르는 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5면>

## 오세정 총장 · 김종섭 총동창회장 평의원 회의 참석 ... 서울대 출신 가수도 파견 방역절차 완화로 인원 더 늘어날 수도

오는 6월 24일 개막되는 제 31차 평의원 회의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 일행의 참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매머드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정 총장



김종섭 회장



노명호 회장

서울의 총동창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회장을 포함해 4~5명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한다.

이같은 본국 총동창회 측의 대규모 파견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김종섭 동문이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을 겸하고 있어 총동창회 측의 이번 회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정부 당국이 입국시 자가격리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 방역절차를 크게 완화, 해외여행이 정상화됨에 따라 서울 측 참석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한국의 유명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의 서울대 출신 가수들도 참가해 축하공연을 펼친다.

평의원 회의는 미주 동창회의 최고의 결 기구로 미 전국의 지부 동창회장단

을 비롯해 종신이사·평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LA 근교의 퍼시픽 팜스 리조트(www.pacificpalmsresort.com)에서 열린다.

##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 캠페인 온정 답지... 4월 10일 현재 1만 5,000 달러

미주 동창회가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 캠페인'에 미주 동문들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4월 10일 현재 동창회에 접수된 모금액은 모두 1만 5,000 달러. 우크라이나 돕기 캠페인은 3월호 동창회보에 처음 실렸다. 홍보기간이 짧았는데도 회보를 받아본 동문들이 1,000 달러에서 100 달러에 이르기까지 기부금을 보내왔다.

뉴욕의 조상근 동문(법대 69)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과 연대하고 싶다"며 1,000 달러의 기부금을 보내왔다. LA의 이호진 동문(간호대 74)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린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모습에 무척 가슴 아팠다"며

성금을 보냈다.

미주 동창회 측의 기부금 목표액은 2만 달러. 기부금은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명호 회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 빨리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펴기로 했다"며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부금 체크 보내실 곳:  
SNUAA USA((미주 동창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Payable to: SNUAA USA

호텔예약안내  
전화: 1-800-524-4557  
링크:  
<https://pacificpalmsresort.com/seoul-national-university-alumni-association/>  
(10면 참조)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입니다.



## 장학생 선발대회에 '여풍' 여학생 지원자가 63% 자연·이공계가 압도적

한인대학사회에서도 '여풍'이 거세다.

지난 3월 31일로 마감된 서울대 미주 동창회 주관 장학생선발대회에서 전체 지원자 68명 가운데 여성이 무려 43명(6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명은 서류미비로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한인인구분포와 비슷하게 나왔다. 캘리포니아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저지(8명), 뉴욕(7명), 버지니아(7명), 워싱턴(5명) 순이었다.

캐나다(온타리오)에서도 4명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일리노이가 3명, 매사추세츠와 조지아, 텍사스에서 각각 2명이 지원했다.

대학은 UCLA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UC 버클리(4명), 하버드(2명) 등이었다.

지원자들의 전공 또한 여성지원자 숫자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다. 자연·이공계 지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장학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인문·예술계는 모두 합해봤자 한자리 숫자에 불과했다. 특히 여학생들은 바이오 쪽 지원

자가 많았다.

장학생 선발대회를 총괄하는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박사는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한 탓에 심사위원들이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고 털어놨다.

장학생은 모두 10명까지 선발하며 1인당 1만 달러를 지급한다. 발표는 4월 30일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https://snuaa.org>)에 실린다.

이번 장학생선발대회는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한국계 대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커뮤니티에 개방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가 한인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위해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한 것이다.

장학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평의원 회의에서 지급된다.

한편 장학위원회 측은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뛰어난 한국계 차세대들의 장래 활약에 동력을 주는 것이라며 장학 프로그램에 많은 동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president@snuaa.org](mailto:president@snuaa.org)  
mail to: [president@snuaa.org](mailto:president@snuaa.org)

## '포르테 디 콰트로' LA 공연 6월26일 김현수·손태진 음대 동문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맞춰 서울대 출신의 유명 팝페라 가수들이 LA에서 공연을 펼친다.

한국의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

의 멤버 가운데 서울대 출신의 보컬리스트 김현수(음대 06)와 손태진(음대 07) 동문은 오세정 총장 일행과 함께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뒤 26일(일) LA 한인타운에 소재한 남가주새누리교회(975 S. Berendo St., Los Angeles)에서 남가주 총동창회 주관으로 공연한다.

이날 공연의 1부 순서는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지휘: 장진영)과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연주로 꾸며진



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2부 순서를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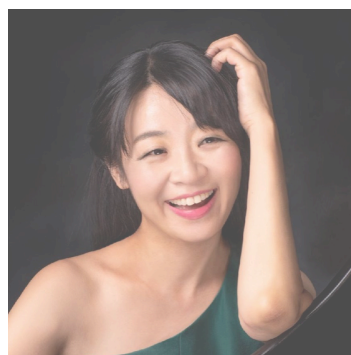
한편 '포르테 디 콰트로'는 지난 2017년 jtbc에서 진행하는 음악경연 프로그램 '퀵템 싱어 시즌 1'에서 우승해 스

타덤에 올랐다. 특히 서울대 출신의 김현수와 손태진은 뛰어난 가창력과 함께 '댄디'한 외모로 한국 팝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상급 팝페라 가수들이다.

최근 정규 4집 '메타포닉'을 발매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앨범에는 모차르트의 '밤의 여왕' 아리아와 사이먼 앤 가펩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등 총 10곡이 수록돼 있다.

## 평의원 회의 초청 강사

### 현대음악의 이해



장지혜 교수  
음대 94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장지혜 동문은 미국에서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피아노 연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장 동문은 작곡가들의 곡을 해석해 주고 피아노로 연주함으로써 청중들의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현대음악은 결코 지루하거나 난해하지 않다는 것이 장 동문의 설명이다.

팬데믹 기간중에도 라이브스트리밍으로 팬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스턴 지역 작곡가들의 작품 13곡을 연주하는 등 주류 음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장 동문은 진은숙, 나효신, 이은영 등 유명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미국 음악계에 소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취득,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해 유럽 등지에서도 꾸준히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 반도체 센서 이용 '텔로팜' 창업



이정훈 교수  
공대 85

'텔로팜'은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부 교수인 이정훈 동문이 창업한 회사다. 식물의 줄기에 바늘(센서)을 꼽으면 물의 흐름과 광합성, 영양분 흡

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해준다. 식물이 필요한 만큼 물이나 비료를 주기 때문에 농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검침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 물을 주기때문에 물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텔로팜은 최근 나파밸리에 소재한 크로프트 팜스 등 캘리포니아의 대형 농장 8곳과 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가뭄이 심각한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에서 텔로팜의 첨단 기술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터



엄종열 원장  
미대 61

엄종열 동문은 지난 2019년 2세대의 뿌리교육을 위해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유산(Korean Cultural

Heritage)'를 출간해 한인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다.

엄 동문은 사진 보다는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2세들에게 더 어필할 것이라고 판단, 직접 펜화로 책을 만들었다.

'노던 텔레콤'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한 바 있는 엄 동문은 '기술삽화가(technical illustrator)'로 미국 군사훈련교본 제작에 참여하기도 한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대 초청으로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해 거북선을 포함한 한국의 군사·문화를 강의해 호평을 받았다.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엄 동문은 미주한국전통문화연구원 원장으로 한국문화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UC 어바인 원윤진 교수(공대 01) 기계공학자가 물 부족 해결사로 나선다

원윤진 동문은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2001 학번이다. 여학생이 거의 없는 탓에 기계공학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다. 여중·고를 다녀 남학생들 틈에 끼어 공부한다는 것이 처음엔 적응이 안 됐다고 한다. 그를 붙잡아 둔 것이 미술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어 상도 여러 개 뒀다. 기계공학이 예전에는 큰 것만 다루워 재미가 없었으나 이제는 미세한 시스템에 응용이 돼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원 동문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UC 어바인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다. 이

른 나이에 상도 많이 받았고 벌써 종신교수가 됐다. 대학에서도 원 동문은 장래가 촉망되는, 유일한 여성 공학자다.

최근에는 결로(dews condensation)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변화를 센서 없이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내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립대 연구진과 협업한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트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원 동문이 처음으로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포럼에 나와 자신의 연구 과제를 동문들에게 설명했다. '상태의 변화'(phase change)를 주제로 한 시간 넘게 동문들과 질의 응답도 가졌다. - 편집자

내가 주력하는 연구과제는 에너지와 물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와 물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물 부족은 글로벌 현상이다. 전세계 11억 인구가 물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와있을 정도다. 특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fresh water)는 전체 수자원 중 3%에 불과하다.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해 내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소모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물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물과 에너지는 과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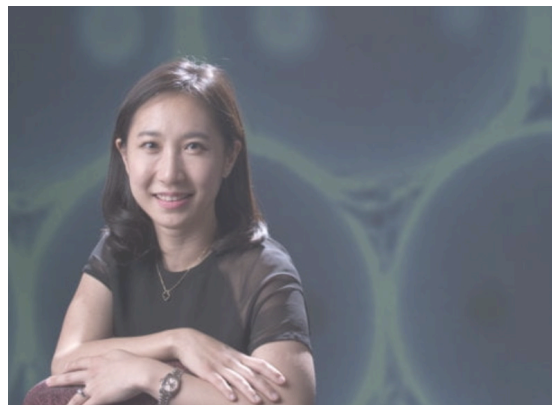
물의 상태변화(phase change)는 모든 산업에서 활용된다. 공장이나 전자기기의 냉각시스템은 물의 상태변화, 곧 기화 현상 등을 이용한다. 기화를 비롯한 물의 상태변화는 짧은 시간에 아주 작은 규모부터 일어난다.

이를 연구하려면 고감도 센서 등으로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이 필요하다. 요즘은 인공지능(AI)이나 나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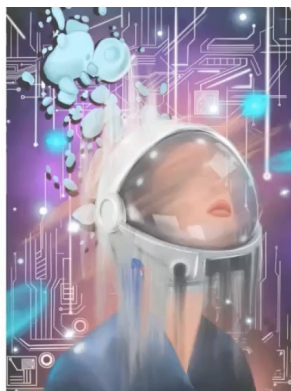
스탠퍼드대 시절 열관리(thermal management)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실리콘 밸리에는 구글이나 애플, 인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열 관리'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컴퓨터 칩은 물론 휴대폰도 갈수록 최소화되고 있어 그만큼 열관리가 중요하다. 최적화된 쿨링 시스템이 필요한 배경이다.

처음에는 소형 팬을 장착해 열을 식혔는데 컴퓨터 용량이 커지면서 칩이 극소화돼 팬으로는 감당이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칩의 뒷면을 깎아 채널을 만들었다. 극소형 수로라고 할까. 이곳에 물을 주입해 기기를 식혔다.



원윤진 동문의 연구과제는 물과 에너지다. 물의 '상태변화'를 알게 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것이 원 교수의 설명이다.



### 데이터 센터 물 소비량 3~5백만 갤런 물의 '상태변화' 연구하면 길이 보여 자체 클리닝시스템 활용으로 물 절약

그러나 칩을 깎는 기술을 몰랐다. 아이디어는 전자공학쪽이 냈는데 결국 만들어낸 건 기계공학 쪽이었다. 채널은 머리 카락 굵기다. 200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시스템이 상용화됐다. 협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한 국가의 중추 신경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쿨링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양은 실로 엄청나다.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는 하루 평균 3~500만 갤런의 물이 필요하다. 인구 3~5만명

가량의 도시가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양이다.

버블(bubble)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면 물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버블은 액체(liquid)가 수증기(vapor)로 변하는 이른바 '상태 변화' 현상이다.

라면을 끓일 때 생기는 버블을 관찰해 보면 이해가 쉽게 갈 것이다. 버블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열을 가하면 버블이 증가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버블이 엄청 많아진다.

특히 미세 전자기기 냉각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 히트 파이프를 예로 들어보자. 히트 파이프는 금속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유체(물)의 액화와 기화를 반복시켜 냉각효과를 내도록 설계한 열전도체다.

한번 물을 넣으면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는 '반영구적 냉각장치'다. 히트 파이프는 작게 만들어 CPU나 스마트폰에 넣기도 한다.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같은 안개가 많이 생기는 곳에는 '포그 넷(fog net)'를 활용해 물을 채집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표면의 자체 클리닝(self-cleaning surface) 시스템도 물 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왁스를 바른 자동차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비가 내렸을 때 빗방울이 차체를 타고 흘러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먼지와 같은 불순물도 함께 씻겨져 내려온다.

이같은 자체 클리닝 기술을 토마토 케첩 따위를 담은 용기 등에 적용하면 별도로 물세척을 할 필요가 없어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건물도 이 같은 셀프 클리닝 기술을 적용해 지었다고 들었다. 물 청소를 하지 않아도 1년 연중 멋지고 깨끗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비록 물은 만들어내지 못할 망정 수자원을 아껴쓰면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미 대륙의 서부는 최악의 가뭄으로 수자원이 점차 매달라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계공학 뿐 아니라 전자공학, 심지어 미술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을 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 작곡계의 노벨상 ‘발로우’ 수상 김택수 동문 서울과학고 진학 … 화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서울대 화학과 졸업 후 음대 편입 ‘가지 않은 길’ 걸어



김택수  
자연대 · 음대(99)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  
았다고.”

김택수 동문(자연대 99)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의 대표작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 떠오른다.

김 동문은 현대음악계에서 널리 알려진 작곡가다. 지난해 8월 전세계 내로라하는 574명의 작곡가들이 겨룬 ‘발로우(Barlow)’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수상자로 뽑혔다.

하지만 그는 원래 전공이 음악이 아닌 화학이다. 서울과학고 3학년때 국제화학올림피아드(호주)에 국가 대표로 참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참가 55개국 중 종합성적 2위에 올라 세계과학계의 강자로 났다.

‘화학영재’로 인정받은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 화학과에 진학한다. 그에게 화학은 ‘이미 가봤던 길’이다. 그때 만해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듯 했다. 그런데 불현듯 화학이 ‘내 길’이 아니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틈틈이 음대 청강생이 돼 음악의 기초를 익혔다. “(화학과는 달리) 음악이 재밌었고 신이 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화학과를 졸업하고는 아예 음대 3학년으로 편입해 본격적인 음악의 길로 나섰다. 프로스트의 시 제목처럼 ‘가지 않은 길’을 택한 것이다.

왜 쉬운 길(화학)을 가지 않고 안 가본 길(음악)을 가려했을까. “철이 없었어요.”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3학년이 되면 실험실 투어를 하며 장래 전공을 결정해야 했는데 흥미를 못느꼈다고 했다. 어쩌면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

지도 모른다.

그런데 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가 화학에 흥미를 못느끼다니….

“올림피아드는 문제풀이 위주예요. 수 학문제 잘 푼다고 수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화학은 암기를 못해서 진즉에 포기했고, 유기화학은 그나마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 분야여서 음악과도 일맥상통했다.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화학문제를 풀어보는데 절반 가량은 맞

“아마 예중-예고-음대 코스를 밟았다면 지금처럼 주목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과학고-화학과를 거쳐 음악으로 되돌이표를 찍은 것이 세인의 흥미를 유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 같다”며 겸손해했다.

화학과 재학시절 그는 각종 동아리에 들어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특히 선교 동아리가 가장 와닿았다고 한다. 인도, 중국, 태국, 칠레 등지에서 봉

있다.

지금까지 그가 쓴 곡은 70여 곡에 이른다. 1년에 몇 곡이나 쓰냐는 질문에 작은 것은 7~8개, 큰 곡(15분 이상)은 2~3개가 고작이라고 했다.

내친김에 작곡료를 얼마나 받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보통 천(달러) 단위와 만 단위로 나뉘는데 입지가 탄탄해야 만 단위를 받는다고 했다. “저는 이제 만 단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며 멋지게 웃었다.

김 동문은 자신이 이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털어놨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곧 식을 줄 알았는데 웬걸, 진짜 한류 붐이 일어난 거예요. BTS, 미나리, 오징어 게임…”

덩달아 자신도 작곡계에서 이름이 알려져 ‘한국 붐’의 수혜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가 닦고 싶은 작곡가는 프랑스의 모리스 라벨이다. “예를 들어 ‘볼레로’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흥이 나고 화사한지…” 음악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나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라벨은 둘 모두를 갖췄다는 것이다. “내 음악도 라벨 처럼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작품 가운데는 한국어 제목이 적지 않다. ‘빨리 빨리(Pali, Pali)’ ‘참살떡(Chapsaltoek)’, 잔을 부딪칠 때 나는 ‘짚(Zzan)’도 있다.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호평을 받았던 곡 중 하나가 ‘더부산조(Dub-Sanjo)’다. 우리 전통음악인 산조를 기반으로 한 클래식이다. “어느 평론가가 바로크 시대의 춤곡을 떠올리게 한 다며 매우 신난다고 했어요. 산조에도 흥이 있으니까 이해는 되요.”

김 동문의 신작발표 스케줄은 꽤 차 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를 필두로 오를랜드 심포니, 런던 심포니, 스미소니언 갤러리 백주년 기념 공연 등이 그의 새 곡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한국의 무속신앙인 ‘굿’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써 볼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이제 동창회에도 나가 보렵니다. (자연대가 아니라) 음대 동창회요.”

작곡계에서 ‘떠오르는 별’이 된 김택수 동문. 프로스트의 시처럼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할까.



▲ 지난 1998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호주)에 한국대표로 출전, 은메달을 딴 김택수 동문(오른쪽).

◀ 김택수 동문의 곡을 연주하고 있는 ‘알람 윌 사운드(Alarm Will Sound)’ 실내악 오케스트라.

## ‘빨리 빨리’ ‘참살떡’ 등 한국어 제목도 런던 심포니 등 신작발표 스케줄 짝 차

힐 수 있다고 싱긋 웃었다.

사실 김 동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또래의 친구들과마냥 그도 정 트리오(정명훈 정경화 정명하)의 활약에 매료된 나머지 음악을 평생의 ‘업’으로 삼을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서울예원중을 지원했는데 쓴 잔을 들이켜야 했다. 제2의 정경화가 되고 싶은 나머지 바이올린을 갖고 심사위원 앞에 섰으나 역부족이었던 것. 그가 서울과학고에 진학한 배경이다.

사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 “음악을 안 했더라면 언어학을 전공했지 않나 싶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알고 보면 언어 짱아요.”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끝내고는 미국 유학에 올라 인디애나 주립대학(블루밍턴)에서 음악(작곡)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샌디에고 주립대학 작곡과 교수다. 한국서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주 작곡가로 위촉돼 이름이 널리 알려

## 박주헌(86)·이지은(88) 부부의 좌충우돌 이민생활기 식품공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코넬대에서 박사 취업장벽 높아 약대 도전 ... 25년만에야 '소프트랜딩'

저희 부부는 농생대 식품공학과 '캠퍼스 커플'입니다. 저는 86학번, 아내는 88학번이지요.

제가 유학을 온 해는 1995년입니다. 뉴욕의 아이비리그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밟았지요. 아내도 이듬해 역시 코넬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받는 대학원생 월급으로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잡 오피를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주하게 됐지요. 그러나 휴스턴은 도시의 특성 상 제 전공에 맞는 회사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시 뉴저지로 유턴하게 됩니다.

휴스턴과는 달리 뉴저지는 집값이 꽤 비쌌습니다. 당시 부동산 버블로 인해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였지만 세상물정(경제관념이 없었다고 할까요)을 몰랐던 저희는 무리하게 2차 모기지까지 얻어 그곳에 집을 샀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 둘 다 직장을 갖고 있어 열심히 모기지 갚아가며 살았습니다. 일년에 한 두 번은 여행을 하면서 미국생활을 즐겼지요. 더구나 신상이 저희 부부 삶의 중심이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2차 모기지를 다 갚고 난 바로 그때 쯤 저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교회에서 가깝게 지냈던 지인의 부탁으로 그분의 비즈니스를 돕게 됐지요. 물론 제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의 중심이 신앙생활에서 비즈니스로 옮겨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미시건으로 옮기는 초강수를 뒀지요. 아내는 훗날 제가 신학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미시건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미시건

에는 우수한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건 이주는 그리 쉬운 결정

이 아니었습니다. 약학대 진학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한 학점

니다.

약대를 다니는 동안 한 체인 약국의 인턴으로 취업이 됐고 졸업과 동시에 그 회사의 약사로 채용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의 약국을 배정받아 기쁨이 배가됐지요.

제가 약사 일을 시작한지 채 1년도 안돼 아내와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일했던 회사에 그동안 대규모 정리해고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무관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결국 아내는 새 직장을 찾았는데 캘리포니아 LA 인근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미시건과 LA에 떨어져 살면서 한 두달에 한 번씩 볼까말까 했는데 코비드가 팬데믹이 되면서 저희는 반년이나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이산가족처럼 살았지요.

마침 아내가 교회에서 우연히 서울대 동문 선배 한 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분을 만나뵈고 동창회에도 참석하는 등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남가주로 이주해 오렌지카운티에 정착할 생각입니다. 그새 미시건 집값이 많이 올라 뉴저지에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니 이런 행운이 또 없지 싶습니다.

뉴욕(코넬대)에서 시작한 미국생활이 텍사스 휴스턴을 거쳐 뉴저지로 유턴, 다시 미시건으로 옮겼다가 이제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주할 계획입니다. 좌충우돌, 저희 부부의 27년 이민생활이 이제는 '소프트랜딩'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문 선배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고맙습니다.



박주헌·이지은 동문 부부. 농생대 캠퍼스 커플인 이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냈다.

### 뉴욕-휴스턴-뉴저지-미시건-LA 아내의 사랑과 헌신으로 약사 자격증 동문 선배의 격려와 배려도 큰 도움돼

이 아니었습니다. 뉴저지 집값이 폭락해 그 집을 팔면 12만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아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시건에서의 제 삶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우선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친네 댄친 격으로 뉴저지에서 입은 허리 부상도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아 상황이 암울했지요.

그 때 제 나이 이미 44세. 어정쩡한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새 도전은 바로 약학대 진학이었지요.

이 하나도 인정을 못받아 결국 6학기 동안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와 정규 일반대학을 오가며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약학대진학 자격시험을 치러 드디어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두 시간이나 운전해서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무려 7년이나 지속됐지요. 이 기간 동안 제 학비는 물론 생활비와 집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모두 아내 혼자 떠맡았습니다. 우리 부부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

####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 산간마을에 공방차린 문병길 동문 “목공예와 썸타는 중~ 나만의 취미공간”

“공방을 한 번 구경하고 싶은데요.” 동창회 신년하례식에서 만난 문병길(문리대 수학과 61) 동문에 던지시 말을 걸었다. “오늘 저녁 가는데요. 같이 가요.” 처음엔 집 거라지가 공방인줄 알았다. “조금 멀긴 한데... (공방이) 러닝 스프링스(Running Springs)에 있어요.” 세상에, 해발

6,000 피트가 넘는 고산지대 아닌가.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선 명소로 꼽히지만 산길(14마일)이 무척 가파르고 꼬불꼬불하다. 운전이 겁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괜찮아요. 폭설이 내리면 어렵지만...”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취재를 했다.

### - 언제부터 목공을 시작하셨는지?

10년은 일주 되네요.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거나 공작하는 걸 좋아했어요. 일에 한번 몰두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지요. 그래서 은퇴 후 취미생활로 소품목 공예를 선택했습니다.

큰 근력을 요구하는 작업도 아니고, 홈디포 등 매장에서 도구나 장비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취미로 안성맞춤이에요. 동문님들에게 강추합니다.

### - 왜 이렇게 먼 곳에 공방을 차리셨나요?

집 거라지에서 하면 소음이 심해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신경이 쓰이지요. 그래서 아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장 겸 해서요.

대체로 2주에 한 번 삼사일 머무르며 작업합니다. 자연경관도 뛰어나요. 멋과 감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할까요.

(러닝 스프링스는 인구 4~5천에 불과한 마운트 리조트로 남가주에선 처음으로 스키장이 들어선 곳이다. 깨끗한 공기와 고즈넉한 자연환경 덕분에 많은 예술가들이 정착해 삶을 꾸렸다.

할리우드의 기념비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작한 데이비드 O. 셀즈닉도 이곳에 둠지를 틀고는 꿈을 키웠다. 실제로 가까운 빅베어 레이크를 ‘바람과 함께~’에 담았을만큼 이곳을 사랑했다.)

### - DIY도 가능한가요?

안 될 것도 없지만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에 등록해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Woodcraft나 Rockler 같은 회사에서 강의와 실습(주로 8시간 코스)을 겸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코스에 4~5명이 수강하는데 실습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 등은 회사 측이 모두 제공해요.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수강료도 싸요. 100달러 정도. 3개월 정도면 초보는 면해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한 탓인지 목공예 클래스가 없다.)



◀ 남가주의 산간마을 러닝스프링스에 있는 문병길 동문의 공방. 14마일이나 되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 집 앞에 절경이 펼쳐진다.

▼ 문 동문이 만든 소품들. 왼쪽부터 테이블 시계, 보석함, 티 테이블. 손주들이나 친척들에 나눠준다.



## 3개월이면 초보 면할 수 있어 손주들에 소품 선물, 보람 느껴 인내심과 도전정신 길러줘 ‘강추’

### - 목공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필요한 몇몇 power tool을 알려드릴게요. (괄호 안은 대략적인 가격).

Wood turner(lathe)(\$400~\$1,000), band saw(\$300~\$1,000), disc & belt sander(\$100~\$300), oscillating spindle sander(\$100~\$300), scroll saw(\$200~\$500).

가격은 정밀도와 내구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 경우 Woodcraft사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Harbor Tools, 홈디포와 로스, Sears 등지에서 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 - 목재는 어디서 구하나요?

주로 우드크래프트나 목공재료 전문점을 찾습니다. 때로는 가정집에서 버리는 오랜 가구 중에서도 좋은 재료를 발견하지요. 버리는 가구(scrap)로부터도 좋은 나무가 발견돼 쓸만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 자원사랑을 몸소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 합니다.

### - 초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두께 1/2 또는 3/4인치, 가로 세로 6인치 정도의 널빤지에 나름의 디자인을 해 그린 종이를 임시로 붙인 다음 band saw나 scroll saw로 잘라 뜨거운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요. 색다른 나무를 포개어 자른 후 섞어서 짝을 맞추면 두 개의 조화된 hot pot 받침이 제작됩니다.

### - 가장 어려웠던 작품은?

손주 생일 선물로 만든 자명종 시계예요. 지름 3.5인치, 길이 4인치 정도의 birch통나무 속에 시계와 트리플 A 배터리, 스피커, 알람 버튼 등을 장착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위낙 좁은 공간에 많은 부품을 넣다 보니 힘은 들었지만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딸의 호들갑 찬사를 받고 나면 들인 공 몇 배의 보상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아들의 지휘봉을 만들어 준 것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막대기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길이, 무게 중심의 위치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사리 만들어냈는데 손잡이 쪽이 약간 가벼웠어요. 공여지책 끝에 손잡이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미세한 쇠구슬을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주 흡족해했어요. 그러나 지휘봉 안에 쇠구슬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어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 - 동문들에게 목공 레슨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직까지 주변에 목공을 하는 동문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취미를 공유한 동문과의 합작은 시너지 효과와 함께 즐거움이 배가 되겠지요.

목공은 각종 기계를 다루며 나만의 독특한 작품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제 적성에 아주 잘 맞습니다.

작업에 몰입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고, 상상의 목표물이 점점 윤곽을 들어낼 때면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희열을 맛볼 수 있지요.

또한 나무를 다루는 과정 중 접착을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인내심도 기르게 되며 각종 기계 점검 및 도구들의 정리 정돈과 함께 노후의 심신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Instagram.com/moonbyungk123:  
moonbyungk@gmail.com

## 생신파티는 산행으로

### 92세 한만섭 (공대 49) 박사, 결혼 65주년 기념도

생신 축하파티는 산행으로 ...

한만섭(공대 49) 박사의 92회 생신을 맞아 지난 3월 26일 북가주 하이킹 클럽 'Zinfandel'이 축하파티를 열었다. 장소는 산행클럽 답게 야외 피크닉 테이블. 이날은 근래 보기 드물게 31명이나 되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원로선배 부



92회 생신을 맞은 한만섭(공대 49) 동문이 부인 이성덕(문리대 52) 여사와 함께 생일 초를 불어 먹고 있다.

부와 덕담을 주고 받는 등 시종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부부는 원래 서울대 동문이다. 부인 이성덕 여사는 문리대 사회학과 52학번이다. 부부는 올해 결혼 65주년을 맞아 이날은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됐다.

한 동문이 "긴 세월 동안 늘 내 곁에 있어줘 고맙다"며 말을 건네자 박수가 쏟아졌다. 한 박사의 한결같은 아내 사랑에 분위기가 훈훈해졌다.

생신 케이크는 한 동문이 제일 좋아하는 레몬 케이크에 '봄의 전령'인 라벤다 꽃으로 장식했다. 특히 한 박사의 모교인 서울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대형 꽃바구니를 선물로 보내와 축하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동문들이 각자 해온 음식이 넘직한 피크닉 테이블 두개를 꽉 채워 더욱 풍성하게 보였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성/이흥진 부부가 이날 모임을 비디오로 찍어 웹사이트에 올리는 등 수고를 아끼



한만섭 동문의 생신 축하 산행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모두 31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지 않았다.

올해 'Zinfandel' 클럽은 신규회원 3명이 추가됐다. 김만재(법대 57)·정재원(음대 60) 동문 부부와 이천진(사대 61) 동문이 처음 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한만섭 선배님, 저희들 곁에 오래 오래 계시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동문들의 소원에 한 동문 부부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취재=최승희(사회대 81)



사진 상단의 동그라미 속 소년은 한만섭 동문, 아래 원내는 이성덕 동문. 1949년 기독교단체 모임에서 만나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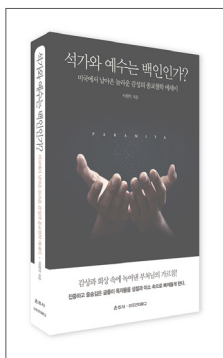
## '석가와 예수는 백인인가?' 이원익(문리대 73) 동문의 종교철학 에세이

참으로 도발적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법한 질문을 제목으로 붙인 책이다. 한국에서의 삶보다 미국에서의 삶이 더 긴, 한 불자의 글 모음집이다. 4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동양인(한국인)

불자(佛者)로서 살아온 삶이 농축되어 있는 책으로 진중하고 웅숭깊은 다양한 성격의 글들이 독자들을 성찰과 미소 속으로 이끌어준다.

미국에서 불자로 산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보아 편한 선택은 아니었을 테지만, 저자는 미국에서 불자로서의 삶을, 실천을,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개인적 수행은 물론이고 각종 수행단체와 재가불자운동에도 참여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이 편견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쓴 글들이다. 그래서 고국, 고향, 어린 시절, 학창시절, 미국에서의 정착 등 다양한 주제와 소재거리 등을 통해 재미있고 찰지게 풀어간다.



이처럼 이 책에는 저자의 삶의 궤적과 함께 그의 생각과 감성이 담긴 다양한 성격의 글들이 실려 있다. 짧은 글에 익숙해진 요즘 세대와 달리 다소 긴 호흡의 글들이지만, 곱곰이 곱씹으며 읽어나

가면 인생을 성찰하고 삶을 반추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석가가 인도의 왕자가 아니라 잉카 제국의 왕자 출신이었다거나, 예수가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아프리카 남쪽 끝, 사막을 헤집으며 찢뿌리 캐러 다니는 부시맨의 아들이었다라고 똑같은 경배를 올리고 그 말씀에 목숨이라도 걸 수 있었을 것인가?"

"겉모양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좋아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조용히 그늘에 앉아 긴 사연을 풀어 들으며 벗이 되고 서로에게 길잡이가 되는 불법의 세상, 가장 누추하고 냄새나는 밑바닥에서부터 그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리라는 나의 바람이다."

## 종신이사 코너

### 권봉성(문리대 64) 동문 "동창회는 이제 제 삶의 일부예요"



지난 3월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권봉성·이은구 부부. 동창회는 삶의 일부가 됐다.

"동문들을 만나다 보면 1주일도 어 느새..."

권봉성(문리대 64) 동문은 스케줄이 늘 꽉 차있다. 지난 14일은 '이목회' 모임이 있었다. 이목회는 매달 두(이)번째 목요일 만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남가주 문리대 출신들의 골프 모임이다.

이날 낮에는 골프, 이어 김순길(문리대 61) 동문 자택에서 뒷풀이 행사가 있었다. 20여 명이 모여 저녁 늦게 까지 수다를 떨다 보니 '엔돌핀'이 평

평 솟아나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세계 남은 삶에서 동창회 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권 동문이 미주 동창회 종신이사에 가입한 이유다. "동창회는 내가 비비델 유일한 언덕이거든요."

권 동문은 원래 산악인이다. 문리대 재학시절 산악반에 들어가 전국의 유명하다는 산치고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산에 '미쳐' 있었다고 했다.

전공은 지질학. 그의 적성에 딱 맞는 분야이기도 했다. 미국에 와서도 오콜라호마 등지의 석유회사에서 오일 시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5년 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서 열흘 동안의 체험기를 일간지에 기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의 지붕' 네팔에서 '신의 영역'이라는 안나푸르나까지. 문리대 시절의 꿈을 7순이 되어서야 이룬 것이다.

권 동문은 "이젠 동창회를 떠난 삶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다음 주 동문 모임에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다고 했다.

## 북가주 동창회 장학생 8명 선발 강정수(문리대 61) 동문 1만불 쾌척

북가주 동창회가 지난 4월 1일 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올해는 강정수(문리대 대기과학 61) 이사장이 1만 달러를 쾌척, 대학생은 1,000 달러, 고등학생은 300 달러의 장

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평가위원장은 추창연(공대 73) 동문이 맡았으며 정윤철(공대 77), 최승희(사회대 경제학과 81), 이희정(음대 91) 동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장학생 명단이다.(무순) 레베카 본 터쉬(칼몬트 고교, 이정남 동문 외손녀)

크리스티 박(스탠퍼드, 김옥련 동문 손녀) 로라 유진 김(일리노이 주립대) 자슈아리(UC 버클리, 이희정 동문 아들) 전소민(UC 버클리) 최은지(UC 버클리, 최창호 동문 딸) 알리나 여(UC 어바인, 여현수 동문 딸) 준 리(캘리포니아 예술대학)

## 명복을 빕니다

김춘자(공대 59)  
2월 14일(라구나 우즈)

배영섭(의대 54)  
3월 24일(시카고)

유효명(의대 58)  
3월 21일(시카고)



## 시카고 동창회 ‘음악나들이’ 양인모 바이올린 공연 ... 북클럽 첫 모임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승주·간호대 69)가 음악나들이를 기획,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음악나들이는 오는 8월 21일(일) Ravinia Park에서 열린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차이코프스키 스펙타클라’로 명명된 이 행사는 세계 인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씨가 출연,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양인모씨는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 보스턴 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케스트라 영 아티스트 콩쿠르 1위 등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있는 젊은 현악기 거장’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 나들이는 이영우 음악간사가 맡아 진행한다. 동창회는 이날 와인 과 치즈, 간단한 스낵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박종희(의대 69) 동문이 진행하는 북클럽이 4월 30일 한인문화회관에서 첫 모임을 갖는다.

이날 Mauro Guillen 경제학 교수와 한인 2세 Michelle Zauner가 쓴 책이 토의된다.

## 뉴욕 골든클럽, 2년만에 ‘기지개’ 신년교류회에 85명 참석 성황



지난 3월 26일 열린 뉴욕 골든클럽의 신년교류회. 85명의 동문 부부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뉴욕 골든클럽 신년교류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년여의 공백 끝에 지난 3월 26일 처음 열렸다.

이날 ‘Atrium of Tenafly’에서 열린 신년 교류회에는 85명의 동문부부가 모여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정필(공대 71) 사무총장이 지난 행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데 이어 홍종만(공대 64) 회장의 개회사, 손경택(농대 57) 전 회장의 격려사, 오순문(사대 68) 감사의 보고, 금영천(약대 72) 뉴욕지부 동창회장의 건배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년 교류회의 하이라이트는 이준희(음대 95) 동문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 테너 최호중(음대 09), 소프라노 민한별(음대 14), 바리톤 강진영(음대 15) 등

문이 주옥같은 가곡을 불러 동문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반주는 황소희(음대 08) 동문이 맡았다.

디너 후 여흥 프로그램은 김광수(공대 72) 동문의 ‘명품 사회’가 가장 돋보였다. 재치있는 영어실력 퀴즈와 노래 자랑 등 동문들의 장기가 이어져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골든클럽은 이날 교류회를 시작으로 골프 토너먼트, 산행, 피크닉 등의 행사를 거의 매달 갖는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 이전 계획됐던 한국단체방문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맛과 멋을 찾아서’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손대홍(미대 79) 동문이 준비를 맡고 있다.

취재=허유선(생과대 83)



지난 3월 22일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남가주 법대 동창회 정기 모임.

## 남가주 법대 동창회 윤석열 동문에 응원의 메시지

남가주 법대 동창회(회장 채규황·69)가 지난 3월 22일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LA 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는 30여 명이 참석, 2년 여의 팬데믹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한 동문들에 서로 덕담을 건네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날 모임의 화제는 단연 윤석열(법대 79) 동문의 대통령 당선이었다. 동문들은 앞으로 5년동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공정하고 정의가 넘치는 국가를 건설해 달라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취재=홍선례(음대 70)

## 남가주 문리대 신년하례식 이경희 회장 취임... 나승욱 동문의 입담 ‘백미’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던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신년하례식이 지난 3월 19일 LA의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박제환(문리대 75·남가주 총동창회장) 동문의 사회로 열린 이날 모임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시간 여 진행됐다. 특히 나승욱(외교학과 59) 동문의 입담은 동문들의 귀를 한껏 즐겁게 해줬다.

이날 새 회장으로 선출된 이경희(인문

대 83) 동문은 동창회 저변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인문대와 사회대, 자연대 등이 모두 동송동 문리대가 뿌리인 점을 감안해 3개 단과대 동문들을 문리대 동창회로 단일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부순서에는 윤희진·최혜성(음대 99) 두 동문이 하프와 플룻 연주로 동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 Dr. 이덕송의 유머 코너

돌팔이 의사

의사: 어디 불편한데라도 있습니까?

환자: 숨을 쉬기만 하면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의사: 아, 그러세요. 그럼 곧 숨을 멈추게 해 드리죠.

Memories of Las Vegas

산부인과를 개원한 한 남자의사는 쑥스러워하는 환자들을 편안하게 해 주기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

기에 분주했다. 어느날 초음파 검진을 하고 있는데 환자가 여간 쑥스러움을 타는게 아닌가. 순간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입고 있는 셔츠가 눈에 들어왔고 그 셔츠에는 ‘Memories of Las Vegas’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에게 조용히 물었다. “라스베가스에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초음파 검사에 그런것도 나오나요?” <의대 55>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 제31차 평의원 회의 남가주 개최

### SNU ALUMNI ASSOCIATION USA

2022년 6월 24일(금)~26일(일)  
Pacific Palms Resort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제 31차 평의원 회의가 6월 24일부터 3일간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김종섭 서울대총동창회장 등 고위급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인 퍼시픽 팜스 리조트는 남가주 최고의 종합 리조트 단지입니다. 36홀 짜리 챔피언십 골프장을 비롯해 컨퍼런스 룸, 레스토랑 등 숙박과 엔터테인먼트를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각 지역 지부장, 평의원 및 동문님들이 모두 참석하시어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16대 미주 동창회 회장 노명호(공대 61) 드림

#### 호텔 예약 안내

평의원 회의 기간 중 일정 숫자의 객실이 서울대 동문님들을 위해 예약돼 있습니다. 호텔 예약은 2022년 5월 23일(월)까지 해주셔야 객실이 개런티 됩니다. 직접 전화(1-800-524-4557)를 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https://pacificpalmsresort.com/seoul-national-university-alumni-association/>

#### CONTACT

**Pacific Palms Resort**  
1 Industry Hills Pkwy, City of Industry, CA 91744  
800-524-4557(Reservation), 626-964-9535(Fax)

#### 회의 일정

<b>6월 24일(금)</b>	11:00 am ~ 02:00 pm 02:00 pm ~ 05:00 pm 06:30 pm ~ 10:30 pm	등록 및 리셉션 세미나 및 패널 토의 전야제, 장학금 수여, 디너
<b>6월 25일(토)</b>	09:00 am ~ 04:30 pm 10:00 am ~ 04:00 pm 06:00 pm ~ 10:30 pm	평의원 전체회의 배우자 및 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오세정 총장 및 김종섭 총동창회장, 평의원 및 게스트 환영만찬 소음악회('포르테 디 콰트로' 음대 동문 김현수, 손태진)
<b>6월 26일(일)</b>	12:00 pm ~ 06:00 pm 05:00 pm ~ 09:30 pm	골프 @ Pacific Palm Ike Course 발전기금 음악회(남가주총동창회)

\* 상기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방은호 동문의 인생유전

## 한인약사 1호 · 최초의 증권 브로커 · 음악영재 발굴

어쩌면 그가 미국에 유학오게 된 것은 ‘담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방은호(약대 43) 동문 얘기다. 방 동문은 미국 감리교 재단이 제공하는 ‘크루세이드 스칼라십(Crusade Scholarship)’을 받기 위해 아펜젤

러 선교사를 만났다. “담배를 피우느냐고 물으시기에 안 피운다고 했죠. 그러자 대뜸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피운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방은호  
약대 43

집에 돌아와 아버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 불호령이 떨어졌다. “예수님의 몸을 더럽혀선 안 된다고 대답을 해야지...”

아차 싶어 그날밤 다시 아펜젤러 선교사를 찾았다. “아까는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펜젤러는 싱긋 웃었다. 결론은 면접 통과. 드디어 미국유학의 길이 열린 것이다.

“아마 선교사님이 제 적극성과 용기를 높이 산 것 같아요.” 그때가 1948년. 아득히 먼 옛 이야기지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방 동문으로선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방 동문은 원래 경성약학전문학교 출신이다. 해방이 되면서 경성제국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로 개편되면서 서울대 약대 제 1회 졸업생이 됐다. 그는 대한민국 제 3호 약제사다. 지금도 그때 발급받은 약사 라이선스를 가보처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방은호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꼭 이뤄내야 할 목표였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미군 수송선을 타고 인천을 출발, 20여 일의 긴 항해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육지에 내려 처음 사먹은 것이 바나나였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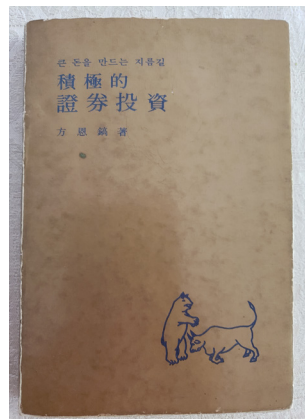
기차를 타고는 꼬박 3일이나 걸려 시카고에 도착했다. 곧바로 일리노이 주립대 4학년에 편입해 졸업, 결국 미국 약사의 꿈을 이뤄냈다.

방 동문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한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약사. 하나 더 있다. 한인 ‘최초’의 미국 증권 브로커다. 약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업군이지만 방 동문은 증권계에도 화려한 족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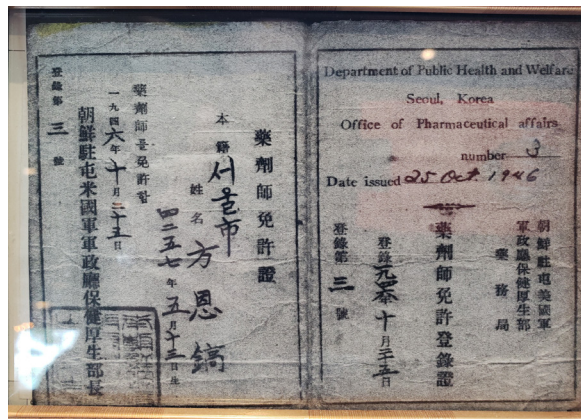
“1967년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존 카우처 목사의 흉상을 자비로 제작해 중앙감리교회에 기증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카우처 목사의 고손자.



1975년 출간한 ‘큰 돈을 만드는 지름길 - 증권투자’. 그해 베스트셀러가 됐다.



1946년 발급된 약제사 면허증. 생년월일이 단기 4257년으로 표기돼 눈길을 끈다.

### 아펜젤러 면접 통과, 미국 유학의 길 ‘큰 돈 만드는 증권투자’ 베스트셀러 용재 오닐 등 세계무대 진출 도와줘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증권 브로커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부업으로 증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Legg Mason & Co’ 등의 투자회사에 들어가 풀타임으로 근무했다. 홍콩에도 파견돼 아시아 영업을 맡기도 했다.

한국 기업과의 첫 인연은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회장. 신 회장에 증권과 관련한 자문을 해 주는 등 한국의 증권시장 성장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가 1975년 출간한 ‘큰 돈을 만드는 지름길 - 적극적 증권투자’는 그해 베스트셀러가 돼 불티나게 팔렸다. 증권투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솔직히 그때 시쳇말로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지난 1979년 자신이 설립한 ‘코리안 콘서트 소사이어티’는 방 동문의 재력과 인맥이 바탕이 돼 나온 결과물이다.

“재능있는 한국인 음악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고 싶었지요.”

실제로 상당수 음악인들이 코리안 소사이어티의 도움으로 데뷔 기회를 가졌다. 세계적인 비올라 연주자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유현아 등은 모두 코리안 소사이어티가 배출한 영재들이었다.

방 동문은 소프라노 조수미와도 친숙한 사이다. 조수미는 코리안 소사이어티가 발굴한 유망주들을 세계적인 지휘자와 감독들에게 소개해 꿈을 키울 수 있

게 도와줬다.

방 동문의 피아노 솜씨도 수준급이다. 언젠가 조수미가 그의 반주에 맞춰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 주변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지금도 워싱턴 음악인들 사이에 전설처럼 회자되는 에피소드다.

그의 음악 사랑은 거의 못말리는 수준이다. 90세가 넘어서까지도 교회 성가대 지휘봉을 놓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대로 방 동문은 ‘모태신앙’ 소유자다. 부모의 신앙으로 주어지는 호칭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남다른 신앙적 분위기에서 자랐을 터다.

부친 방훈 목사는 아펜젤러가 1891년 개척한 중앙감리교회의 19대 담임목사다. 이 교회는 한국 감리교의 ‘어머니 교회’로 불린다. 배재학당을 세운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와 존 카우처 목사의 체취가 짙게 배어 있는 교회다.

가우처 목사는 아펜젤러에 비해 낯설지만 조선 선교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다. 이 교회 한편에 있는 가우처 목사의 흉상에는 사연이 있다. 방 동문이 미국에서 제작해 기증한 것이다. 한국서 가우처 흉상은 잊혀지고 있는 초기 미국인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방 동문의 부친은 애석하게도 6.25 때 납북돼 소식이 끊겼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방 동문은 선교사의 자녀들, 이른바 PK(Preacher’s Kid)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PK치고 방 동문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들이 드물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0여 년 전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으나 이제는 완치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누구든 기도를 부탁하면 빠뜨리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요.”

최근에는 매일 천자문 쓰기를 하며 자서전 집필도 구상하고 있다. 미술품 수집도 빼놓을 수 없는 방 동문의 취미생활이다.

문득 ‘젊음은 세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올해 98세인 방 동문은 지금도 분명 ‘젊음의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듯 했다. **취재=한정희(미대 81)**



### 발행인에게

#### “서울대는 역시 달라요”

미네소타의 송창원입니다. 지난 2월호에 뜻밖에도 저의 회고록에 대해 기사를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끝없는 영광입니다.

저의 아내는 이화여대 출신인데 서울대 회보를 읽을 때마다 “역시 서울대는 다르다”며 칭찬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원(문리대 화학과 53·미네소타)

#### “나도 과평윤씨 후손”

3월호에 실린 윤경민 동문의 족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 역시 과평 윤씨 36세손입니다. 윤씨 집성촌 중 두 번째로 큰 경북 예천 화자 문중의 장손 집안이지요.

금년 미주 평의원 회의 세부일정이 확정됐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동창회에서는 4~5분이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항공권 상황이 좋지 않아 서울로 발권을 해야할 것 같아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은 이제 봄꽃이 만발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양희주 (서울대 총동창회 사무국 과장)

#### “엄마도 재밌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선배님들께서 동문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주시는 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도 매달 동창회보 읽는 거 유익하고 재밌다고 좋아하네요.

제게 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

## 서울대 ‘5수생’ 폭발적 인기 ‘수능 고작 3개 틀렸는데 ‘썸잔’ 하루를 분 단위 쪼개가며 공부

서울대 ‘5수생’의 이야기가 요즘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샵’에는 ‘나의 5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5수 끝에 서울대 입학에 성공한 유튜브 ‘이든’(나이든의 줄임말)의 이야기가 담겼다. 그의 본명은 김소정(인문대 21).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KBS 전파도 탔다. K대 출신의 ‘3수생’ 성시경과 나눈 대화가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

그는 첫 수능이후 재수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부모님이 대학에 욕심이 많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재수를 하고 나니 원래 다녔던 학원에 돌아가기 창피해 고향(인천)을 떠나 서울서 3수를 하게 됐다.

약작같이 공부한 끝에 수능에서 단 3개를 틀리는 기쁨을 맛 볼 수 있었다.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탓일까. 다른 대학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서울대에만 원서를 냈다. 그러나 그해 서울대에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결국 낙방의 쓴잔을 들이켜야 했다.

단 3개만 틀렸는데... 억울한 나머지 4수에 도전하기로 맘을 굳게 먹었다.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가며 공부에만 올인했다. 혼자 5분만에 밥먹고 2분만에 양치하고 1분만에 다시 앉아서 공부했

다.

고개를 숙여 공부하다 보면 목이 아프기 마련. 파스를 계속 붙여가며 수능 준비를 했다. 나중엔 목이 짓물릴 정도가 됐다.

하지만 4수도 실패했다. 유독 어려웠던 국어영역에서 멘탈이 무너졌고 서울대의 꿈은 또다시 떠나갔다.

서울대가 목표였지만 계속 그 꿈이 좌절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결국

비서울대에 진학한다. 명문에 속하는 대학이었으나 못내 서울대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1학년 1학기를 끝으로 자퇴를 하고 또다시 수험생의 길로 들어섰다.

그간 해온 공부 덕분인지 그는 수능에서 총 2개만 틀려 드

디어 서울대에 합격했다. “흥분은 안됐습니다. 외려 ‘이제 끝났구나’하는 안도감이 들었을 뿐이예요.”

5수만에 새내기가 되어보니 친구들은 대부분 졸업한 뒤였다. 교대에 들어간 또래들은 벌써 선생님이 돼 있었고... 심지어 결혼한 친구도 있었다.

미학과를 지원한 그는 앞으로 박물관 큐레이터나 갤러리스트가 되는 꿈에 부풀어 있다.

서울대에 가겠다는 목표 하나로 약작같이 공부해 결국 꿈을 이룬 그의 ‘5수 이야기’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귀감이 되고 있다.



40년 전 미국에 올때 다수의 관련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하버드 대학의 연천 도서관에 기증도 했습니다. 동창회보에 다양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늘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발행인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성희(사대 58·북가주 팔로 알토)

쭈 모임은 김병식 동문이 주관 보내주신 동창회보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지부를 너무 잘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정정해야 할 점은 매주 수요일 열리는 쭈 미팅은 김병식 선배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좋은 기사 많이 실렸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한 모금은 저희 지부 동문님들께도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희순(캐나다 밴쿠버 지부 회장)

#### 총동창회 4~5분 참석 예상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난 3월 28일 정기 총회에서 제 28대 서울대총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김종섭 회장님이 선출 되셔서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를 응원합니다.

임경빈(수의대 12·워싱턴 DC)

####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글에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스턴에도 드디어 봄이 오려는지 기운이 조금씩 따뜻해지네요. 모두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신진우(농생대 04·보스턴)

#### 김현정 동문님께 감사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호에 실린 ‘마운트 버논에서 대통령의 길을 묻다’를 읽고 한 말씀 드립니다. 처음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웬 뜬금없이 정치타령이냐며 솔직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읽다보니 조지 워싱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한국도 워싱턴을 벤치마킹해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을 글 써주신 김현정 동문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롬 박(문리대 65·남가주 터스틴)

###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는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 300만 달러 모금 캠페인 계정에 별도 적립되고 있어 동창회 운영비용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면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내=27면 참조>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CT 방사능 노출 걱정돼요 위험 없어 ... MRI도 대안

문: 3년 전 방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악성 종양이 발견된 탓에 제거외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암 전이가 우려돼 6개월마다 정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CT 스캐닝을 해야돼 솔직히 좀 겁이나요. 혹시 방사능에 피폭돼 없던 암이 생길까 봐 두렵기조차 합니다. CT 촬영기사는 정부가 허용하는 수치를 지키고 있으니 걱정말라고는 하는데 정말 괜찮은지요?

답: 걱정이 되시겠지요. 물론 방사선이 작은 양일수록 또는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CT 검사의 이점이 CT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보다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암의 전이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CT로 인한 2차 위험요소는 사실 거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CT 대신 MRI를 하면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없으니 담당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정자**(방사선 암전문의, 간호대 70 · 워싱턴대 의대)

### 이사가려는데 높은 재산세 부담 55세 이상 홈오너는 변동 없어

문: 올해 갓 70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살기에 집이 너무 크기도 하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

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재산세예요. 새 집의 경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재산세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0년 전에 산 집이어서 재산세가 1년에 5,000 달러도 안 돼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오렌지카운티의 라구나 힐스입니다. 이사갈 곳은 LA이고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을까요. 가령 시니어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5세 이상 홈오너들이 집을 팔고 살 때 큰 폭의 재산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통과된 '주민발의안(Proposition) 19'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포지션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격과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재산세를 동일하게 이전(transfer)하거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동문님이 집을 오래 전에 25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집을 100만 달러에 팔고 50만~100만 달러짜

리 집으로 이사하신다면 재산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에 팔고 200만 달러 짜리 집을 산다면 재산세 산정가는 125만 달러가 됩니다. 최초 구입 가격(25만 달러)에다 증가한 주택가치 100만 달러를 합산한 것입니다.

'주민발의안 19'가 없었다면 재산세 부담 때문에 이사할 엄두를 못냈을 겁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주훈**(음대 69, 부동산 브로커)

### 반려견이 암에 걸렸는데... 클리닉 보단 대학병원 추천

문: 아들이 두고간 14살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년 예방주사를 맞고 별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두 달 전부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X-레이도 찍고 피검사를 받았습

니다. 조직검사결과 암 진단(spleen cancer)이 나왔습니다. 즉시 암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아들은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거부하며 다이어트로 건강을 되찾아 주겠다고 합니다. 사료도 오가닉 치킨과 브로콜리, 달걀을 반숙해 비타민에 섞여 먹고 있습니다. 입맛에 안맞는지 강아지가 잘 먹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14년동안이나 키우셨다니 사람 나이로는 거의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건강하게 오래동안 잘 키우셨습니다.

지나치게 다이어트 요법을 강조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사료를 먹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잘 먹어야 체력이 유지되니까요.

암 전문의를 찾아가서 종합적으로 반려견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병원보다는 수의과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는 수의사 가운데 'oncology' 전문의는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최용준**(수의대 81)

### 알림

이번 호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문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면입니다. 세금 부동산 건강 법률 낚시 목공예 등 실생활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망라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만큼 익명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웹사이트(<https://snuuaa.org>)의 'Questions?'에 문의하셔도 되고 이메일([snuuausa30@gmail.com](mailto:snuuausa30@gmail.com))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동문님들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미주동창회 발전을 빕니다

**박제환** 문리대 75 |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 오흥조(치대 55)의 포토 에세이



## “5천년이 살아 숨쉰다” 신이 빛은 ‘브리슬콘’ 소나무 숲

캘리포니아에는 유독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이 붙은 나무들이 많다. 덩치로 따지면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제너럴 셔먼이 있고 높이로는 레드우드가 으뜸이다.

그런데 나이로는 어떨까. 캘리포니아의 등뼈라고 불리는 이스턴 시에라 네바다의 화이트 마운틴(White Mountains)에 세계 최고령 나무가 자라고 있다. 바로 ‘고대 브리슬콘 소나무 숲(Ancient Bristlecone Pine Forest)’이다. 평균 수명 4,000년이 넘는 나무들의 군락지다.

LA에서 북쪽으로 약 290마일 떨어진

지역 있다. 가을철 단풍으로 유명한 비숍(Bishop)에서는 40마일 남짓. 해발 1만4,000 피트(약 4,300 미터)의 고산지대에 있어 한 여름철에도 천둥번개가 자주 쳐 기상변화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소나무가 주는 강한 생명력과 오랜 세월을 견뎌낸 흔적이 신이 빛은 조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경이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로테스크’하기조차 하다.



특히 고령의 소나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흠이 침식되면서 뿌리가 다 드러났음에도 강한 의지로 나무를 붙잡고 있어 그 생명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곳에는 ‘디스커버리’와 ‘무드셀라’의 두 트레일이 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무드셀

라’에 있다.

하지만 어느 나무가 무드셀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이 호기심이 작동한 나머지 손을 댈까 우려해 당국이 비밀에 부쳤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무드셀라의 나이는 올해 5,072세다. 무드셀라(Methuselah)는 무려 969년을 살았다는 구약성경 속의 인물이다.

브리슬콘 소나무 숲의 백미는 고목 사이로 피어난 야생화다. 창조주의 팔레트 위에 그려진 형형색색의 야생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박 변의 영화 내멋대로 보기

## A Most Wanted Man 황당무계하지 않은 진정한 스파이 영화

여러분들은 스파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만들어진 Mission Impossible 시리즈에다, Jason Bourne 시리즈에다, 급기야 Hanna 처럼 10대 소녀까지 가세시킨 인간 병기들만 나오는 액션 스파이물에 길들여진 나머지, 우리는 흔히 거의 수퍼 히어로급 스파이들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영화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이기에 불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아하는 영화들이다. 그러나 A Most Wanted Man, 이 영화를 보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초인간적인, 사이보그급 스파이들에만 세뇌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랫만에 너무 괜찮은 영화를 보았다. 내가 요즘 영화들이 너무 개연성이 떨어 진다고 개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만들어도 잘 만들 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해 주는 영화였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 된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

무대는 독일 함부르크. 어느 날 러시아 아빠, 체첸 엄마 사이에 태어난 혼혈 청년이 함부르크로 밀입국을 한다. Issa Karpov. 아랍계 이름에 러시아 성씨. 종교는 이슬람. 그리고 러시아 정보 당국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은 전력으로 보아, 체첸 테러 조직과 분명 연계가 되어 있을 듯 하다.

이 친구는 독일에 망명을 요청하고 여자 인권 변호사 Annabel Richter(Rachel McAdams 분)가 망명 신분을 얻도록 그를 도와 주러 나타난다. 한편, 이 친구를 유심히 관찰, 감시하는 조직이 있으니 독일판 CIA로, 공격적인 독일 정보부와는 또 별개로 마치 사조직 비슷한 비밀 조직이다.

사고가 나면 정부마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미국의 Mission Impossible 같은 존재.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수장이 Gunther Bachmann (Philip Seymour Hoffman분). Gunther는 또 한편으로

이슬람 사회에서 신망이 있는 자선 사업가 Dr. Abdullah를 지켜 보고 있는데, 이 자가 알 카에다에게 자선사업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있을만한 일인가? 정보 조직은 살인이 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숨어서 정보를 수집하는게 대부분의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을 그려, 관객들의 동정을 유도하지 않는다. 2시간 정도되는 긴 영화인데도 보통의 스파이 영화에서 흔히 보듯 총격전, 자동차 추격, 치고 박는 액션, 아찔한 곡예 같은 장면이 없다.

배우들의 연기가 다들 군더더기없이 훌륭하다. Annabel, Tommy, Irna 다 들 자연스럽다. Gunther의 오른팔 역인 Irna역의 Nina Hoss는 훌륭한 몸매의 금발인데 기품있는 여자 스파이 역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 특히 주연을 맡은 Philip Seymour Hoffman의 절제된 연기는 너무나 훌륭하다. 그는 다른 영화에서도 연기의 깊이가 있다고 칭찬받던 배우.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 영화 촬영 후 2014년 그는 복합 약물 복용으로 숨졌다.

2008년에 출판된 유명한 스파이 소설 작가 John Le Carre의 동명의 소설이 원전. John Le Carre는 영국 정보국 요원 출신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아쉽게도 John Le Carre 또한 2020년에 사망해 이제는 그의 새 작품을 볼 수는 없다.



### 할리우드 명배우의 연기 앙상블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유작 첩보물의 거장 존 르 카레 원작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증거는 없다.

Gunther는 위험분자를 바로 잡아 들이기 보다는 정보원으로 포섭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자꾸 층층이 정보원을 심어 결국에는 최고급 정보를 얻고, 소위 몸통, 최고위 수뇌부를 파악할 목적으로. (“We direct them to bigger targets. It takes a minnow to catch a barracuda. A barracuda to catch a shark. We take our time. We watch. We wait...”) 이 대목에서 이 영화 참 사실적이다 라고 느끼게 한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흔하겠는가? 스파이 액션 영화들에서는 하나를 구하기 위해, 아니면 제거하기 위해, 그 와중에서 흔히 조직의 이름없는 전투 요원들이 대낮 도시 한 복판에서, 총격전 끝에, 무수히 희생당

Gunther 조직의 이런 활동이 정말 진정한 스파이 활동같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런데 Issa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Gunther의 조직뿐만 아니다. 미국 CIA와 독일 공조지 정보기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Issa를 잘못된 러시아 정보 당국의 정보를 믿고, 테러리스트로 단정하고 그를 무조건 체포하자고 한다. 어쨌든 Gunther는 Issa를 이용하여 독일 정부와 미 CIA의 승인하에 작전을 개시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독일 정부와 미 CIA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한다.

이 영화가 현실적, 사실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Gunther를 포함한 정보원들의 행위를 미화도, 비판도 않으면서 건조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조직원들의 인간적인 고뇌나 사적인 삶

글=박준창 변호사(인문대 79)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 유의영 교수의 'LA 폭동 30주년' “한흑 갈등이 직접 원인이 아닙니다” 흑인 동네서 장사를 하다 보니 피해를 입었을 뿐

유의영 박사(문리대 56)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날 때마다 각종 언론매체에 단골로 소환되는 사회학자다. 그래서 한인 이민사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불린다. 유 박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착잡해진다. 4월 29일, 이른바 '사이구' LA 폭동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라고 할까. 올해는 폭동 30주년을 맞는 날이어서 더욱 그렇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한흑 갈등 때문이었어요.” 대체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길래….

1950년대 중반 무렵 부인 오옥실 여사의 사촌오빠가 필라델피아에서 흑인청년들한테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돈을 달라는 흑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자 심하게 얻어맞았다.



유의영 · 오옥실 부부

유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당시 뉴욕타임스 등 주류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필라델피아 시장의 오빠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용서해 달라”며 사죄할 정도로 미국사회에 주는 충격이 컸다. 시장은 유가족 측에 가족 중 누구라도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면 시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다.

가족회의를 연 끝에 아내가 낙점됐다. 당시 경기여고를 나와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던 오 여사는 오빠의 ‘죽음 값’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것. 그 무렵 펜실베이니아 대학(유펜)에서 학위를 밟고 있었던 유 박사는 교회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다. 템플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아내는 방위산업체 맥도널 더글러스에 스카우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흑인(과 관련된 사건)이 아내를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됐으니 ‘사이구’만 오면 저나 집 사람이나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요.”

유 박사는 LA 폭동을 몸으로 겪었다. 구호대책본부 위원장을 맡아 한인들은 물론 심지어 흑인 주민들까지 챙겼다. 폭동의 와중에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자 교회(LA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 구호센터를 오픈해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돌봤다.

한흑 갈등이 폭동의 빌미가 됐느냐는

질문에 유 박사는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갈등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유 박사는 단호했다. “한인들이 흑인밀집 거주지역에서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 뿐이에요.” 흑인들의 한인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심 때문에 한인업소들이 타겟이 됐다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유 박사는 이른바 ‘두순자 사건’도 폭동의 원인이 됐다고는 믿지 않는다며 불행한 사건일 뿐이라고 했다.

두순자 사건은 흑인 밀집 동네에서 마켓을 운영했던 두씨가 흑인소녀를 절도범으로 오인, 총으로 쏘 숨지게 한 사건이다. 판사는 두씨의 정당방위를 인정, 사회봉사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에게 인종문제는 ‘가정사’와 겹쳐 늘 풀어야 할 숙제다. 어떻게 타인종과 잘 지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 박사는 세 단어로 압축해 답을 내놨다. “One of Us.” 쉽게 말해 흑인이건, 히스패닉이건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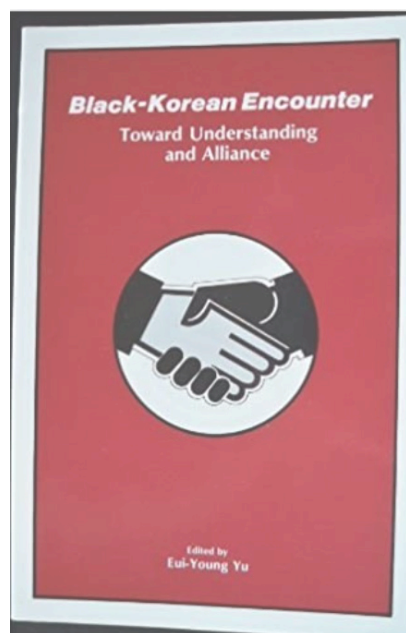
그러면서 편견(prejudice)과 선호(preference)는 구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정 인종에 대한 선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편견이 끼어들면 갈등이 불거져 나온다는 것이다.

유 박사는 한인들의 단점으로 ‘편견’을 꼽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인들 만큼 ‘정’이 많은 민족도 드물다며 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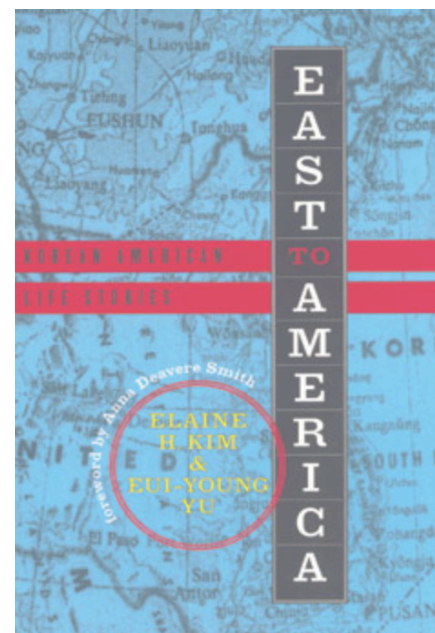
편견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봤다.

폭동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이번엔 2세대들이 한인타운에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 “하버드나 스탠퍼드 등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사우스센트럴(흑인 타운)에서 무보수 교사를 자

### 갱에 목숨잃은 처남 대신 아내가 유학 인종편견과 선호는 확실히 구분해야 ‘김씨 성 표본’은 미 사회학계의 ‘고전’



LA폭동과 한인 이민역사를 다룬 유의영 박사의 저술은 학계의 ‘고전’으로 불린다. 유 박사는 구호위원장을 맡아 폭동을 몸으로 겪었다.



한 사랑을 받았어요.”

유 박사는 ‘김씨 성 표본(Kim Sample Method)’을 처음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주에서도 김씨 성 가진 사람이 전체 커뮤니티의 21~23%에 달한다는 연구다. 그가 추산한 한인인구는 연방센서스 결과와 거의

일치해 놀라움을 줬다. 이처럼 유 박사는 한인 연구에 관한 한 늘 ‘프런티어’다.

1세대가 이민의 무대에서 사라져도 코리아 타운은 존속할 것인가. 사회학자로서의 견해를 물었다. “걱정마세요. 2세대도 (한인타운) 살기가 편해 더 발전할 겁니다. 백인들만 사는 데는 불편해서 못살아요.” 대답이 시원시원했다.

인종화합에 정답은 있는 걸까. “간단해요. 우리(한인들) 잘 살잖아요. 못사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도와줘야 해요. 그럼 돼요.” 복잡한 학술 이론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처방을 내놨다.

유 박사 부부는 동창회 모임에는 늘 ‘개근’이다. “우선 편

해요. 동문들이어서 세대차이도 거의 못느끼고… 역시 늙으면 옛 친구들이 최고예요.” 유 박사와의 인터뷰는 동창회 예찬으로 끝을 맺었다.

#### 유의영 박사는

1963년 도미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사회학 박사  
캘스테이트 LA 교수  
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 객원교수



# 주진희 박사의 톡톡 튀는 시사해설

## 아메리칸 드림과 중국몽은 ‘치킨 게임’인가

### 체스와 바둑의 차이 ... 전략적 접근해야 이겨

지난 2월 21일은 리처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 주석을 만났던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미중관계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고립된 중국을 외교무대에 복귀시킨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순간이다. 닉슨은 중국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포용전략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은 당초 목표했던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요즘 미국은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방위 분야에서 중국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의 안보지형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얼마전 국제관계 전문가 주진희 동문이 뉴트 김리치 전 하원의장의 저서 ‘Trump vs. China’를 번역해 한국어판(‘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으로 출간했다. 다음은 최근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가 주관한 주 동문의 미중관계 특강을 간추린 것이다. - 편집자.



주진희  
문리대 외교학과 72

‘핑퐁외교’의 설계자인 헨리 키신저 박사는 중국이 국제 공동체에 편입되면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체제를 채택하리라고 믿었다. 닉슨의 중국방문을 성사시킨 그는 양국간의 경제 군사협력 및 과학기술교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같은 미국의 이른바 ‘낙관주의’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계속됐다.

#### 낙관주의의 종말

그러나 중국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항상 공산주의의 고귀한 이상을 고수하고 있다”고 천명, 결국 공산독재체제를 더욱 강고히 해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강대국, 곧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뉴트 김리치 전 하원의장은 그의 저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자유로운 주권 국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른 종류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기독교 문명 vs. 중국몽

옛 소련의 붕괴로 동서냉전이 종결되자 국제정치는 이념과 경제를 둘러싼 충돌이 아니라 문명을 단위로 하는 세력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학자가 있다. 바로 미국의 사무엘 헌팅턴 교수다. 그는 문화의 공통성 보다 차이 점이 두드러지고 융합과 공생보다 마찰과 대립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기독교 문명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시진핑의 중국몽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중화사상을 입힌 것이다. 시진핑은 공산주의가 승리할 것이며 자본주의는 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헌팅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상호 배타적인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두 문명이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팍스 시니카’의 세계질서

중국몽은 시진핑이 과거 세계의 중심역할을 했던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한마디로 그의 통치이념이나 다름없다. 중국몽은 중국이 G2(주요 2개국/중국과 미국)가 아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으로 이른바 ‘팍스 시니카’(Pax Sinica,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실현을 추구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Belt & Road Initiative)’도 중국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주변국가들과 경제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140여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몽은 2021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단계의 생활수준)를 실현하고 이어 2044년까지는 선진국이 돼 강력하고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중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빅데이터와 AI 통제

중국의 인공지능, 곧 AI 기술은 이미 유럽을 제치고 미국을 바짝 추격해가고 있다.

빅데이터는 중국 AI의 힘의 원천이다. 이미 안면인식, 음성인식, 신용정보, 치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 50년 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이 마오쩌둥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트 김리치 전 하원의장의 저서를 주진희 동문이 번역해 한국어판으로 출간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AI를 사회적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위구르 카슈가르의 감시 시스템, 전산화된 강제수용소가 악명높은 사례들이다.

#### 할리우드와 공자교실

미국의 학교에 중국 공산당의 자금지원으로 세워지는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문화전파를 내세우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공산당 체제 이념의 선전 및 첩보의 거점이라는 결론이 났다. 미 의회는 중국이 여론조작에 활용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가 공자학원임을 적시한 바 있다. 공자학원을 통해 미국의 젊은 세대에 접근,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며 할리우드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체스 vs. 바둑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뇌게임이 체스와 바둑이다. 체스와 바둑의 승부를 가르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체스는 각개

전투를 통해 킹을 잡으면 이긴다. 그러나 바둑은 개별 전투는 그리 중요치 않다. 세력을 넓고 두텁게 구축해 상대를 포위해야 이기는 게임이다. 아무리 수세에 몰렸어도 포석을 잘 두면 나중에 이길 수도 있는 것이 바둑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을 보면 마치 체스와 바둑 게임을 보는 듯 하다. 미국의 거칠고 막강한 화력이 바둑식 포석을 두는 시진핑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체스가 아닌 바둑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미국의 주적

중국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의 인공섬 최소 3곳을 군사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굴기’를 표방하며 달에 군사기지를 건설, 위성 공격용 무기 은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주적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협약체 ‘쿼드’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판매를 승인, 중국에 맞서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구권에 군사원조를 대폭 끌어올려 반 러시아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닉슨은 임종하기 전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회한에 찬 말을 남겼다.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른다.” 중국을 ‘몬스터’로 묘사한 닉슨의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 주진희 동문은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에모리대 국제관계학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의

# 이순신 vs. 넬슨

## 영국 · 일본은 충무공에 더 후한 평가

충무공 이순신을 동북아의 한낱 해군 장수에서 일약 글로벌 스타로 띄운 인물은 뜻밖에도 영국 해군제독이다. 그의 이름은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1862~1948). 일본 시찰 중 우연히 이순신이란 이름을 듣게 됐다. 발라드가 일본에 오게된 것은 1905년 일본이 예상을 깨고 대

마도(쓰시마) 해협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꺾어버린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에 놀란 영국은 발라드를 일본에 파견, 일본이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승리한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은 일본을 잠재 위협국으로 간주해 대책마련에 나섰던 것이다.

그가 맨 먼저 만난 일본 측 인사는 당연히 러일전쟁의 영웅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었다. 발라드는 도고에게 누가 롤모델이냐고 물었다. 당연히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는 말이 나올줄 알았는데 웬걸, 이순신이라고 하지 않는가. 발라드에게 이순신은 ‘뜬보잡’이나 다름없었다.

발라드는 3년을 일본에 체류하고는 귀국해 책을 써냈다. ‘바다가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이다. 이 책에서 발라드는 상당 부분을 이순신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책에는 도고와의 대화 중 이순신에 관한 그의 평가가 나온다. “나를 넬슨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순신에게는 못미친다. 그가 제독이라면 나는 하사관에 불과할 뿐이다.”

발라드의 솔직한 고백도 눈길을 끈다. “영국인 입장에서 넬슨과 견줄만한 인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참 힘들다. 그러나 이순신은 넬슨과 동급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군신’으로 추앙받는 도고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호레이셔 넬슨 제독

러 · 일전쟁이 계기, ‘글로벌 스타’로 트라팔가르와 명량 해전은 비교불가 7월 워싱턴서 거북선 퍼레이드 ‘뿌듯’

말을 빌지 않더라도 전술, 전략 면에서는 물론 인품 자체에서도 충무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넬슨의 트라팔가르 해전을 보자. 33척의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27척의 영국 함대로 격파한 넬슨의 승리는 단 하루의 결전이었다. 수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전력이었다. 그러나 충무공은 7년이란 기간 중 수십 차례의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특히 명량해전에서는 133척의 일본함대를 단 12척의 배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넬슨의 경우 영국이 온 국력을 기울여 뒷받침한 일전이라면 명량 대첩은 충무공이 백의종군 끝에 어느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서 싸운 외로운 승리였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도 “이순신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의 승리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일본함대를 섬멸했다”고 높이 평가했지 않은가.

오는 4월 28일은 충무공 탄신일이다. 7월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이순신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 취재팀>**



역사적인 미국 독립기념일 워싱턴

# 거북선 퍼레이드

-미주 서울대인의 지극한 충무공 이순신 사랑과 한미 우호의 정신으로-

동문 여러분의 \$100 지원을 호소 드립니다.




\*\*\* 특별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 이상) \*\*\*

남가주 지역	워싱턴 D.C	뉴욕	펜실베이니아
박윤수 (문리대) \$600	박용걸 (약대) \$8,200	이전구 (농대) \$200	서중민 (공대) \$300
이송희 (간호대) \$500	정원자 (농대) \$500	신용남 (농대) \$250	손재욱 (생과대) \$200
조옥동 (사대) \$200	☺안선미 (농대) \$6,200		
나정자 (간호대) \$300	변만식 (사대) \$500	<b>시카고</b>	<b>매사추세츠</b>
오송자 (사대) \$1,000	이건형 (수의대) \$1,300	이용락 (공대) \$500	오세경 (약대) \$1,000
	민홍기 (문리대) \$1,000		
	서휘열 (의대) \$500		

**송금 방법** \$100 또는 자유 금액 수표를 아래 명義와 주소로 우송

**보내실 곳** **Yisunsin America Institute**  
P.O.Box 9584, McLean, VA 22102

간사 이우진 (농대 86) 703-470-7282 towoojin@gmail.com • 자문 이내원 (사대 58) 703-725-8910 naewonlee@yahoo.com

# 죄와 사망, 그리고 삶의 성찰

## 때가 되면 죽어야 생태계 유지돼



오세경  
약대 61

철이 들면서부터 우리 모두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틈이 없었다. 매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와 같이 1940년도 전후의 출생자들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어렵게 살아온 세대여서 우리의 생존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물론 배우자와 친구까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요즘에는 내 차례도 멀지 않았다는 쓸쓸한 생각을 갖게 된다.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죽어야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단지 24시간 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있는가 하면, 몇천년을 두고 아직도 살아 있어서 정확한 수명을 추측할 수 없는 거대한 세코이아(sequoia) 나무도 있다. 그러나 인간, 특히 모든 동물들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다.

### 수명은 자연의 섭리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된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우리가 살아 생전에 행한 개개인의 죄의 유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두고 이를 찬양한 성경구절도 있다. “~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예는 식물뿐 아니라 동물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알을 낳기 위해 연어는 수천마일의 바다를 거슬러 올라와 사력을 다하여 민물에 도착하면 산란을 하고 이후에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알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남기기 위하여 자

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식물계에서도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 봄이되면 새싹이 나서 자라고 여름에는 그 풍성한 잎이 하늘을 뒤덮을듯 왕성히 자란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그 풍성한 잎이 화려한 색깔로 변하여 여름의 찬란한 역사를 빛내며 주고는 가지에서 떨어져(이것을 생화학에서는 apoptosis라고 함) 땅을 굴러다니다가 썩어버리고 만다. 이렇으로써 그의 주체가 된 나무는 더욱더 왕성하게 자라나고 추운 겨울을 버티어낸다.

이와같이 모든 생물은 때가 되면 죽어야만하고 이로 인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으로써 지구상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죄와 무관한 죽음

개개인의 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죽음도 상당히 많다. 가령 1-4세의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사망을 한다든가 부모로부터 변이된 유전자를 이어 받아서 일생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명이 다하기 전에 죽게 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런 병들은 희귀한 경우이지만 이런 변이된 유전자를 가지고 타고난 선천적인 병도 4,000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하는가.

이러한 희귀 질환을 제쳐 놓고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다. 이 경우 암 환자의 1% 내외가 유전자 변이에 의한 선천적인 요인이고 80% 이상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나 그 기작이 하도 다양함으로 여기에서 이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요점은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키거나 또는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정상이 아닌 이상한 복제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의 정상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생태계는 계속해서 유전자를 복제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80일이 지나면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포를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한다.

암생물학의 세계적인 권위 Raymond Rudden 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복제



주세페 데 리베라(1591~1652)의 대표작 '삼위일체(The Trinity)'. 스페인 출신인 그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다.

## 유전자 잘못 복제하면 악성세포 암의 80% 이상은 후천적 요인 죽음 준비해야 아름다운 마무리

과정에서 염기 한두개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의 항암 작용으로 이를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착오가 한가지의 유전자에 2개이상 9개까지가 누적되었을 때에는 정상 세포가 악성세포로 변형된다고 한다.

### 성령 훼방과 암

우리의 세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유전자를 복제하다가 결정적인 잘못을 일으켜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착오가 누적되면 결국은 악성세포로 변형된다고 하는 결론은 암의 발전기작과 별로 다르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복제 과정에서 한

두개의 착오는 몸에서 제거가 된다. 그러나 이런 착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 경우에는 염기 하나를 잘못 복제하여도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ras mutation의 경우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 있다. “~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런 구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착오로 복제를 잘못하여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잘못 베끼면 암으로 변형된다는 원리와 상당히 흡사하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맞이하는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고 죄와 유무와 상관이 없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죽음을 맞이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일생을 보내다가 끝마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 다음 세대 위한 유산

알코올이나 아편 중독에 걸려 일생을 취생몽사 하듯이 보내다가 차거운 길거리나 감방에서 보람없이 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은 적탄

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우리 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나 영국의 넬슨 제독과 같이 장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잘 먹고 잘 놀다가 아무 유산도 남기지 못한 채 가치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해놓고 죽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All is well that ends well”이라고 하여 좋은 끝마감을 하면 인생은 잘 보낸 것이라 하였다. 성경에도 “악령을 이긴 자에게는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하여 영생케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이 있다.(요한 계시록).



김영희  
인문대 88

“나도 그것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국가기관에 등록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불쑥 말했다. 당시엔 코로나19 걱정도 있었지만, 나이 많은 부모에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일인 듯싶어 망설였다.

몇달 뒤 생각지 못했던 엄마와의 이별을 맞고 나니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른다. 그때 손을 잡고 함께 갔다면,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결정해줬다는 생각에 엄마가 조금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임종기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 4년을 맞았다. 그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회복 불가능한 임종과정일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처럼 시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자신이 미리 문서로 밝혀둘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의 국가연명의료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등록 건수는 118만6697건이다. 19살 이상 성인이 대상이니 아직 많은 숫자라 하긴 어렵다. 특히 남성 등록자는 여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993년부터 통일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미국의 경우 작성률이 36.7%에 이른다. 상담비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며 급증했는데, 작성 상담의 절반 가까이 건강검진 때 이뤄진다고 한다.

생각하고 들어볼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 실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의사 아들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는 주민들이 생의 마지막 시

기 들이는 병원비나 입원 날짜가 미국 평균의 절반인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사례가 나온다.

이곳은 일찍부터 삶의 마지막 시기 원하는 바를 대화하고 문서화 하는 캠페

요한 지점은 무수하다.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로 또 다른 삶을 시작한 5선 출신 원혜영 전 의원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장기 기증을 할지, 유산기부를 할지, 말기 상태에 대비해 후견인을 정할지, 모두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병원이, 가족이, 법이 결정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삶의 주인으로서 건강, 재산, 사후 절차 등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일들을 내가 결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웰다잉 운동”이라고 말한다.

전 국민의 20%가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3~4년 앞이다. ‘웰다잉’이 재산 많거나 성공한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터.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장기기증 안내 팸플릿을 나부터 다시 꺼내봐야겠다.

(충동창 신문 논설위원)

## 삶의 마무리, 생각해 보셨나요



인을 펼쳐왔다. 가완디는 “설문지 자체가 아니라 중환자실에 가기 전 여러 번 환자와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봤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연명치료 문제 외에도 선택이 필

거나 성공한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터.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장기기증 안내 팸플릿을 나부터 다시 꺼내봐야겠다.

(충동창 신문 논설위원)



서량  
의대 63

도널드는 젊었을 때 친척과 다툼 끝에 과실치사를 저지른 후 오래 동안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아왔다. 60대 중반. 그는 현재 내 병동에 머물고 있다.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사고형식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대화에 있어서 내용보다는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과 말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을 때 상대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누가 당신에게 “나는 겨울이 좋아. 닭고기는 맛이 없어!” 한다면 두 짧은 문

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어서 당신은 몹시 어리둥절할 것이다.

당신과 나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 객관적인 연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언어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세련된 언어감각으로 초현실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시라면 혹시 모르지만.

전에 도널드는 병동에서 하워드와 주먹다짐을 벌인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주는 약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때 약을 안 먹은 이유를 물었더니 거두절미하고 “하워드!” 하고 응답했다.

하워드에게 언어맛고 화감에 약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명료한 언어능력이 도널드에게는 없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대답은 난센스지만 앞뒤를 맞춰보면 그의 통명스러운 대답에 이해가 간다.

옛그제 도널드가 또 다른 환자에게 언어맛고 왼쪽 눈두덩이 퐁퐁 부었다. 싸운 이유는 다른 환자가 품은 시샘 때문이었다. 도널드를 퇴원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병원 캠퍼스에 있는 클럽 하우스에 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 마치도록 질투가 났던 것이다.

젊었을 때 바디빌딩을 해서 아직도 배에 박힌 임금 왕(王)자를 종종 과시하는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때린 그놈을 혼내 주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나보다 분열증 증세가 더 심하기 때문이었어.”

얼마 전 병동 간호사실에 한인업소에서 산 케이크를 갖다 놓았다. 모두들 케이크가 맛있다고 한다. 오후에 도널드가 복도에서 내 쪽으로 뛰어 와서 말한다. “(병원) 음식이 끔찍하게 맛이 없어요.”

그가 연이어 묻기를 음식을 끊고 물만 먹으면 안 되냐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얼른 엄격하게 대답한다.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내 말을 듣기가 무섭게 그는 ‘오케이’하며 자기 방 쪽으로 뛰어 간다.

고대 영어에서 ‘food’는 전인도유럽어 ‘pa-’에서 생겨난 말로서 ‘먹이를

주다’는 동사의 뜻에 ‘보호해주다’의 의미도 있었다. 지금도 그 잔재로 ‘companion(반려)’, ‘company(회사)’ 같은 단어에 ‘pa-’가 남아있다.

‘pasture’는 명사로 ‘초원’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는 ‘가축을 풀밭에 내어 놓아 풀을 먹이다’라는 의미도 된다.

어릴 적에 부르던 시편 23장 찬송가가 생각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pastures)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에 나오는 ‘pastures’는 잔잔한 물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지금껏 한 번도 병원 음식에 대하여 불평한 적이 없는 도널드가 느닷없이 그런 말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코로나 팬데믹이 또다시 난무하는 시기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감이 표출된 것일까.

어디를 살펴봐도 푸른 풀밭을 찾을 수 없는 정신병원 캠퍼스를 아프게 감지했기 때문이었을까.

(시인 · 정신과 의사)

## 병원 음식과 푸른 초원



윤희진  
음대 99

## 코로나 시대와 음악인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어간다. 모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변화를 느꼈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기 위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많은 부분이 팬데믹 이전의 생활처럼 돌아온 지금, 아직도 가끔씩 그동안 연주자,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버텨내고 지내왔는지 질문을 받는다.

약간은 거창하게 들리는 ‘음악인’, ‘하피스트’ 로의 삶. 음악을 직업으로 사는 삶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거 같다. 물론 성취감과 보람과 동시에 음악도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여 이 기술을 직업으로 이끌어 내야한다는 중압감을 함께 가지고 살아온 것 같다.

졸업 후 음악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온 세월들이 여기까지 왔고 아마도 이 직업이 당연하게 내 삶이 되어버렸다.

이 코로나 시대는 나에게 작은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전에는 가끔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연주도 팬데믹 동안에는 연주에 목이 말랐고 연주회의 기쁨은 배가 되었고 매번의 연주회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마스크를 쓰고 연주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고 영상을 만들어 소통하려는 시도도 해보았다. 학생을 가르치고 바라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학생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컴퓨터 스크린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레슨을 하며, 학생들과 비대면 연주를 계획하며 그렇게 이 시간이 지나왔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기회가 줄어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의 교류를 끊이지

않고 이어 갈수 있을까 고민도 자연스럽게 내 직업의 부분이 되어버렸다.

또한 관객으로서 마음껏 연주회를 다니지 못했던 것도 모두에게 정말 아쉽고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얼마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말



러 7번 공연을 다녀왔다. 마스크를 쓰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보면서 몽클함이 올라왔고 또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으로서 또 몽클함이 들었다.

이번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

향을 끼쳤지만 예술계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예술계에서도 다른 형태의 시도도 많이 생겨 났고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잠시 멈춤은 있었으나 그로 인해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싶다.

음악에 대한 대중들의 응원과 관심이 계속 되고 음악가들이 계속 전진하는 한 공연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며 음악은 항상 우리 옆에 있을 것이다.

음악으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상을 우린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던 코로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쁘게 살게 된 요즘 어찌보면 나는 그동안 느꼈던 삶의 소중함을 잊고 또 중압감과 함께 정신없이 살아가겠지만 그 또한 코로나 시대가 극복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루스벨트의 ‘경기장의 투사’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와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테디) 루스벨트. 둘은 삶의 궤적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만델라가 서른 해를 쇠창살에 갇혀 지냈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만델라가 ‘화해와 통합의 아이콘’이 된 데는 루스벨트의 영향이 컸다. 둘은 어떻게 1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떨쳐내고 ‘하나’가 됐을까.

‘만남’의 단초는 짐작컨대 스포츠. 사연은 이랬다. 집권 첫해, 만델라는 럭비 국가대표팀 ‘스프링박스’의 주장을 관저로 불렀다. 잔뜩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었으나 말엔 비장함이 묻어났다. “대표팀에 흑인들을 넣어 주시오.” 당시 스프링박스는 백인들의 전유물. 인종차별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터다. 오죽했으면 국가대항전이 열려도 흑인들이 상대팀을 응원했겠는가.

자국팀에 야유를 보내며 지기를 바라는 국민들. 만델라는 이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프링박스를 흑백 혼합팀으로 만들라는 압력을 넣은 것.

대통령의 주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월드컵에서 꼭 우승해 주시오.” 만델라는 이듬해(1995년) 남아공에서 열리는 럭비 월드컵을 인종화합의 대체전으로 만들 심산이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겨야 했다. 최약체로 분류돼 참가국마다 남아공을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판국에.

주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자 만델라는 그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봉투 하나를 건넸다. 숙소로 돌아가 열어 보라는 말과 함께.

“이러쿵 저러쿵 훈수나 돌려야 사람이 중요할리 없지요. 정말 소중한 사람은 경기장에 있는 투사들입니다.” 루스벨트가 퇴임 후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한 것으로 흔히 ‘경기장의 투사(Man in the Arena)’로 불리는 명연설이다. “(투사는) 부단한 열정으로 대의를 좇아 성심을 다해 몸 바쳐 싸웁니다.

잘 되면 승리의 결실을 맛볼 것이요, 설사 진다해도 대담하게 맞서다 쓰러질 것입니다.”

비록 루스벨트를 인용했지만 만델라의 진심이 느껴졌다. 편지를 읽은 주장은 울컥했다. ‘흑백은 하나’라는 대의를 따른 덕분인지 남아공은 월드컵에서 연일 기적을 써내려 갔다. 영국과 호주에 이어 세계 최강 뉴질랜드마저 꺾고 우승 트로피를 안은 것. 이 감동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스크린으로 옮겼다. 영화 ‘인빅터스’가 탄생한 배경이다.

남아공의 럭비 월드컵 제패는 1980년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팀의 동계올림픽 우승과 함께 스포츠 역사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그해 유력한 금메달 후보는 ‘북극곰’ 소련. 미국은 대학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꾸렸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는 없는 일. 그런데도 강호들을 잇달아 격파하고는 드디어 소련과 맞붙었다.

연장 혈투 끝에 이긴 쪽은 미국. 당초 메달권에 들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팀이 투혼을 불사르게 된 동력은 ‘경기장의 투사’였다. 선수들마다 빙판에서 ‘대담하게 맞서다 쓰러지겠다’며 다짐, 또 다짐한 결과물이었던 것. 냉전이 한창일 무렵이어서 미국의 우승은 파장이 컸다. 얼마 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스스로 무너지는 운명을 맞지 않았는가.

요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꼭 ‘경기장의 투사’ 같다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가 침략하자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담하게 맞서다 쓰러지겠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기부 응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일 것이다. ‘경기장에서의 투사’는 결코 패배한 적이 없다. **〈편집고문〉**



## 머리 박치기(headbutt)한 자의 죄와 벌 월드컵 경기서도 레드카드 받으면 퇴장당하는데...



이회백  
의대 55

2006년 월드컵 결승전 당시 프랑스 대표팀 주장인 지단이 이탈리아팀 마르코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지단은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을 당했다. 연장전에서도 2대2 동점으로 끝난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가르게 돼 결국 프랑스가 4대5로 패배했다.

지단은 사과는 했지만 후회는 결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후 마테라치가 인터뷰에서 이유가 밝혀졌다. 마테라치가 경기중 세번이나 부딪혔고 지단은 "경

기가 끝난 뒤 내 유니폼을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마테라치가 "네 옷보다 네 여동생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 지단 vs. 마테라치

지단은 알제리아 독립전쟁 전 프랑스로 온 부모에서 태어났다. 자기 어머니를 향해 '테러리스트'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그가 이런 인종차별로 인해 그의 성격이 다소 과격해진 게 아닌가 싶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머리로 우크라이나 가슴을 들이받은 격이다. 지단과 같이 러시아도 아무 이유없이 들이받는 건 아닐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곧 나토에 가입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들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도 이라크가 장차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라크, 그리고 나토에 가입한 우크라이나, 누가 더 위협적인가.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때에는 왜 다들 잠자코 있었을까. 가만히 있기는커녕 영국

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미국의 침공을 도와주지 않았던가? 이라크 침공 때문에 생긴 중동 피란민을 적극 막으려든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은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저런 이유로 러시아로서는 부당한 차별을 당한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단이 마테라치에게 당한 모욕은 고려되지 않고 레드카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지난 4일 유엔에 의해 141대 5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자는 결의안이 특별 유엔총회에서 93개국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 레드카드 받은 러시아

국가간의 분쟁은 축구장의 분쟁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잡하다. 누가 먼저 잘못을 시작했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도 가려내기 힘들다.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도 판

단하기 힘들다.

한국전쟁의 시작도 6. 25가 아니라 8.15라는 사람도 있다. 시카고대학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에서 그 원인을 조선시대까지 올라가 지주, 소작농까지 다루고 있다.

### 우크라이나서 퇴장해야

세상에 완전한 정의란 없다. 완전한 정의를 구하려 하다간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 레드카드가 부당하다고 퇴장을 안한다고 한다면 그 경기는 끝이 날 수 없다.

야구경기에서 1루수 심판이 오판하는 바람에 투수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록인 '퍼펙트 게임'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심판 자신이 오판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법칙상 번복할 수 없었다. 아무리 억울하다 치더라도 레드카드를 받았으면 나가야 한다.

러시아도 레드카드를 받았으니 우크라이나에서 퇴장해야한다. 그러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위해서 좋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이 납부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보는 이제 월간발행부수 1만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회비 및 후원금 납부양식=27면>

## 힐우드의 저택에서 나눔의 품격을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이 가져다주는 호사를 누리려고 싶어한다.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 확보된 후에는 성취와 행복의 상관관계가 비례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 왔지만 자족하는 선을 긋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쉽게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을 수도 있다. 성공이나 성취란 개념에 속하는 것 중엔 명예도 있겠고 권력이나 부의 축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어느 것도 이루기 쉽지 않고, 주어진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된다.



김은성  
간호대 75

미국의 부자들중엔 자신들이 살던 고대광실을 박물관으로 남기고 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허스트 캐슬(Hearst Castle),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의 빌모어(Biltmore Estate)가 그런 예가 될 것 같다.

도시 가운데 있는 저택들은 그보다 규모는 적으나 그래도 서민들은 거저 쥐도 결코 유지할 수 없는 규모이다. 도시에 비교적 아담한(?) 주택을 가진 부자들은 대부분 자연 가운데 별장같은 저택도 소유했다고 한다.

그중에 워싱턴 디씨에 위치한 부자집, Hillwood Estate를 소개한다. 아침에 먹는 시리얼 회사로는 Post가 제일 크고 오래된 회사인데 Post 시리얼의 상속녀 Marjorie Post가 살던 저택이다. 구약성경 속의 만나에서 영감을 얻어 시리얼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 유명한 회사다.

지금은 박물관이 된 이 곳은 Marjorie Post의 세번째 남편이 구소련 대사로 근무할 때 대량 수집한 러시아 왕정의 예술품들과 프랑스 왕궁의 가구들로 장식된 호사스런 저택과, 아름다운 유럽식 조경의 정원이 방문객들에게 우아한 하루를 선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타지에서 온 손님을 모시고 여러번 방문하여 진기하고 아름다운 많은 예술품들을 구경하며 눈호강을 했으나 그보다 더 내 마음에 남은 것은 여주인이 어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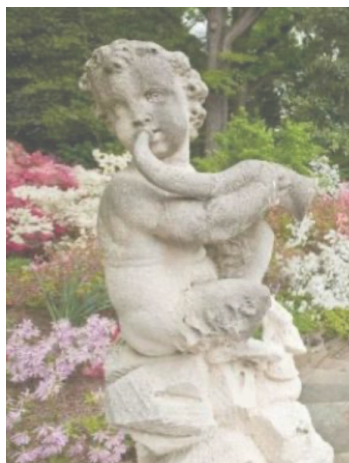
게 손님들을 접대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방문한 손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방문 전에 미리 알아서 메모해 두는 것은 물론, 머무는 동안 특별히 무엇을 선호했는지 꼼꼼히 기록해서 보관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타월은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는지 까칠한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와인이나 주류를 즐기는지 등등. 손님들이 그곳에 머무르며 최대한의 환대를 받았다는 기억을 주려고 최선을 다한 기록이었다.

부자들이 성처럼 크고 아름다운 저택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과 가구 등을 갖추고 산 이유 중 하나는 함께 하고 싶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다. 부자들의 호사스런 주거환경에서, 만나보고 싶고 함께 해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수단으로 자신의 부를 활용해 왔다는 것을 보게된다. 열심히 이룩한 부를 함께 누릴 사람도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고 흠모하는 사람들도 초대하여, 다시 오고 싶어지는 경험을 주려고 노력한 것을 본다.

미국의 유명인사들의 프로파일에는, 약력과 함께 그들의 종교적 배경이나 중점적으로 기부하는 단체들에 대한 소개가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미국에서 부의 나눔은 사회적으로 거의 확고한 기대치인데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는가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잣대가 되곤 한다.



▲ 힐우드 저택의 프랑시스식 다이닝룸.

◀ 유럽의 예술품으로 장식된 정원.

### 시리얼 재벌 상속녀 포스트 손님들의 취향 기록으로 남겨

박물관으로 공개된 부자들의 저택에 가면, 그곳에 손님으로 초대되었던 유명인사들의 목록도 볼 수 있다. 집주인이 교류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며 그가 무엇에 가치를 두었는지 엿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제일 잘나가던 테니스 선수를 초대하여 귀빈으로 모시며 함께 테니스를 쳤던가, 장쪽도가 몇달간 묵으며 함께 문학을 논하며 교류했다던가, 케네디 대통령과 재클린 부부가 주말을 보내고 갔다던가, 유명한 연극배우들이 와서 주인에게도 한 배역을 맡기며 풍류를 즐겼다가... 교분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과의 친분을 누리

기 위함이 멋진 저택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였음을 본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함께 누릴 사람이 있어야 즐거움이 배가된다고 한다. 기부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가장 고귀한 통로라면 내가 교류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최고의 환대를 베푸는 나눔은 부자라서 누리는 품격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집을 방문해준 손님들에게 정성껏 환대받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부를 잘 나누는 품격 중 하나인 것이다. 부자는 부자의 수준으로 서민들은 서민들의 수준으로.

우리 어린 시절엔 타지에서 아무 연락없이 친척들이 찾아와서 오래 묵는 일이 많았다. 수저 한 벌 더놓고, 이불 하나 더 깔면 되는 한국의 옛 주거환경이 아련하다.

Hospitality, 즉 손님을 정성껏 대접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은 서민 가정의 주부들에게도 품격에 속한다. 고용인이 노동을 해주는 부자들과 달리, 집주인이 직접 모든 일을 해야하니 서민가정의 hospitality는 더욱 귀중한 나눔이라고 생각된다.

바쁘고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품격중에 hospitality도 포함되는 것 같다. 친지를 방문해도, 호텔에서 숙박하고 식당에서 먹으면 된다는 편리함을 선택하면서 잃어 버리고 있는 나눔과 접대의 아름다운 품격이 아쉽다. 수고와 정성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듯한 요즘의 흐름이 안타깝다.

www.snuuaa.org

#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1,067,902**

### 종신이사 (\$3,000이상)

#### 다이아몬드이사

워싱턴주 - 故고광선(공대57)

#### 플래티넘이사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 골드이사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 55)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 실버이사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 종신이사

남가주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종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서치원(공대69)  
심상은(상대54)  
심화섭(약대61)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해(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홍동(공대58)  
홍병각(문리55)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 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옥(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69)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박경민(의대53)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정태(의대 57)

#### 미네소타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호숙(사대65)

####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한만섭(공대49)

####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 시카고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 오하이오

김용현(경영66)

####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박평일(농대69)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민홍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이내원(사대58)  
오인환(문리63)

####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헌민(공대84)

#### 조지아

김용건(문리48)

####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중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신의석(공대53)  
이만택(의대52)  
주기목(수의68)

####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 종신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이사  
\$10,000 이상

(S) 실버이사  
\$5,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uaa.org  
news@snuuaa.org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인 소비자학과]

#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정신과 의사 (의대 '65)

###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셜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다쳐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http://bandibookus.com)



#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2021.7.1 ~2022.6.30, 제2차 회기:2022.7.1 ~ 2023.6.30) 볼드는 제 2차회기

### 남가주

- 강경수(법 58)
- 강동순(법 59)
- 강윤희(간 46)
- 강중경(공 48)
- 강창만(의 58)
- 강추자(간 69)
- 강호석(상 81)
- 강홍제(상 53)
- 강희창(공 57)
- 고석규(지 65)
- 구철희(의 78)
- 권기상(대 72)
- 권오근(상 58)
- 김경수(문 59)
- 김건진(문 62)
- 김경수(사 54)
- 김경수(치 58)
- 김경숙(간 68)
- 김경욱(미 61)
- 김광은(음 56)
- 김교복(중 63)
- 김기덕(문 74)
- 김기(중 78)
- 김남영(공 53)
- 김동산(법 59)
- 김동석(음 64)
- 김문업(중 83)
- 김병연(공 68)
- 김병연(공 58)
- 김상찬(문 65)
- 김서담(법 55)
- 김상철(법 54)
- 김석규(공 66)
- 김석훈(법 59)
- 김신희(문 66)
- 김성건(공 56)
- 김성호(법 64)
- 김성환(의 65)
- 김수영(사 57)
- 김수향(간 68)
- 김순자(치 57)
- 김영덕(법 58)
- 김영도(공 67)
- 김영봉(사 60)
- 김영중(치 66)
- 김영희(간 54)
- 김원택(공 65)
- 김원호(약 63)
- 김은숙(미 62)
- 김의영(문 61)
- 김일영(의 65)
- 김지경(사 60)
- 김지성(의 79)
- 김재영(중 62)
- 김재희(문 54)
- 김준일(공 62)
- 김진식(공 66)
- 김창진(공 77)
- 김태운(법 53)
- 김택수(의 57)
- 김학철(의 55)
- 김현순(간 69)
- 김홍록(문 60)
- 김화섭(의 55)
- 김희재(사 66)
- 김희창(공 64)
- 니두섭(의 66)
- 니민주(문 65)
- 니승욱(문 59)
- 노영호(공 61)
- 류정순(상 69)
- 문병길(문 61)
- 문인일(공 51)
- 박명근(상 63)
- 박민식(수 65)
- 박부강(사 64)
- 박영욱(사 55)
- 박우선(공 57)
- 박원준(공 53)
- 박은숙(미 62)
- 박인수(중 64)
- 박인정(공 65)
- 박임하(치 56)
- 박정우(의 54)
- 박재환(문 75)
- 박중수(수 58)
- 박찬호(중 63)
- 박창규(약 59)
- 박취서(약 60)
- 박호성(의 55)
- 박호현(의 52)
- 박희자(음 68)
- 방명진(공 73)
- 배동환(공 65)
- 배병욱(음 58)
- 배윤숙(미 65)
- 배효식(문 52)
- 배승호(치 55)
- 백해욱(간 69)
- 변영근(수 52)
- 서동영(사 60)
- 서명희(중 67)
- 서치원(공 69)
- 선우원근(공 66)
- 성낙호(치 63)
- 성주경(상 68)
- 손기용(의 55)

- 손학식(공 61)
- 신건호(법 53)
- 신동국(수 76)
- 신복례(문 83)
- 신영찬(의 63)
- 심상운(상 54)
- 안병일(의 63)
- 안승호(공 71)
- 양승문(공 65)
- 양승중(음 70)
- 양문택(의 58)
- 양태준(상 56)
- 양동해(농 74)
- 오선웅(의 63)
- 오천수(약 57)
- 위종민(공 64)
- 유석훈(상 61)
- 유영자(음 63)
- 유이중(중 74)
- 육태식(의 61)
- 윤경민(법 55)
- 윤석철(상 60)
- 윤진수(의 57)
- 윤희성(치 65)
- 이강훈(치 65)
- 이건섭(치 54)
- 이경희(상 69)
- 이명선(상 58)
- 이방기(농 59)
- 이범모(치 74)
- 이법식(공 61)
- 이서희(법 70)
- 이성자(간 76)
- 이소희(의 61)
- 이인수(간 78)
- 이영수(상 60)
- 이영일(문 53)
- 이영현(간 70)
- 이윤환(공 64)
- 이원익(문 73)
- 이원택(의 65)
- 이유빈
- 이익삼(사 58)
- 이장길(치 63)
- 이재권(법 56)
- 이재홍(치 66)
- 이재홍(간 54)
- 이정근(사 60)
- 이정화(공 52)
- 이소주
- 이종도(공 66)
- 이종모(간 69)
- 이준호(상 65)
- 이진영(의 65)
- 이창무(공 54)
- 이창신(법 57)
- 이재진(문 55)
- 이택성(공 56)
- 이해영(공 56)
- 이호(음 92)
- 이호진(간 74)
- 이효표(의 58)
- 이희중(공 68)
- 임동규(미 57)
- 임동호(약 55)
- 임문빈(상 58)
- 임재영(공 59)
- 임창희(공 73)
- 임춘수(의 57)
- 임춘선(공 71)
- 장근숙(간 73)
- 장기열(치 55)
- 장동석(문 66)
- 장영경(미 73)
- 장인숙(간 70)
- 장정용(미 64)
- 장경배(의 75)
- 전남관(사 60)
- 전범수(농 71)
- 전상욱(사 52)
- 전원일(의 77)
- 전교희(의 65)
- 정병희(농 70)
- 정수만(의 66)
- 정신(대 92)
- 정연웅(상 63)
- 정예원(상 63)
- 정인환(법 54)
- 정진순(사 54)
- 정진우(의 66)
- 정철룡(의 55)
- 정형민(문 71)
- 정환(공 64)
- 조경수
- 조동준(의 57)
- 조만연(상 58)
- 조상호(농 51)
- 조선주(간 69)
- 주영세(사 59)
- 지중근(농 56)
- 진석호(공 04)
- 차중환(사 54)
- 최영구(상 61)
- 최영주(사 57)
- 최영순(간 69)
- 최영원(공 57)
- 최중권(문 59)
- 최진석(법 64)
- 최천주(간 69)

- 추교훈(농 63)
  - 한동수(의 60)
  - 한원민(의 59)
  - 한중철(치 62)
  - 한홍택(공 60)
  - 한호동(공 58)
  - 한기용(문 64)
  - 홍병각(사 46)
  - 홍성우(문 55)
  - 홍성관(사 46)
  - 홍선례(음 70)
  - 홍선일(공 71)
  - 황건홍(공 55)
- ### 뉴욕
- 강영선(공 50)
  - 강에드워드(사 60)
  - 김창훈(의 63)
  - 김동석(상 57)
  - 김동성(상 58)
  - 김정호(의 58)
  - 김영호(의 66)
  - 김광희(의 67)
  - 김기택(수 81)
  - 김명수(미 57)
  - 김명철(공 60)
  - 김문경(약 61)
  - 김병권(공 63)
  - 김보영(간 69)
  - 김석식(의 58)
  - 김석자(문 61)
  - 김영길(문 62)
  - 김영무(공 75)
  - 김영수(법 66)
  - 김영숙(약 53)
  - 김영철(의 55)
  - 김영태(의 54)
  - 김용연(문 63)
  - 김우영(상 60)
  - 김우현(의 59)
  - 김윤수(상 50)
  - 김정희(간 69)
  - 김중원(사 58)
  - 김중현(법 57)
  - 김중권(의 63)
  - 김진자(간 60)
  - 김태일(공 68)
  - 김태석(상 57)
  - 김해안(의 52)
  - 김현중(공 63)
  - 김희중(약 54)
  - 리준우(공 65)
  - 문석연(의 52)
  - 문소지(문 60)
  - 김선희(약 59)
  - 김정선(문 66)
  - 김형철(음 57)
  - 박중근(의 56)
  - 박승중(의 56)
  - 박수안(의 59)
  - 박수영(법 56)
  - 박승화(간 69)
  - 박은규(약 72)
  - 배상규(약 61)
  - 배정희(사 54)
  - 변건웅(공 65)
  - 변호현(간 63)
  - 서랑(의 63)
  - 석창호(의 66)
  - 선중철(의 57)
  - 손갑수(약 59)
  - 손경택(음 57)
  - 손규성(사 61)
  - 손원배(농 70)
  - 송근숙(간 66)
  - 송기인(의 60)
  - 송웅길(대 69)
  - 신두식(의 58)
  - 신용남(농 70)
  - 신의정(음 65)
  - 신정자(간 62)
  - 양거영(의 48)
  - 변우진(문 81)
  - 양성택(상 63)
  - 성우진(치 87)
  - 오동호(의 66)
  - 오용환(약 68)
  - 우규환(사 60)
  - 우상영(상 55)
  - 원인숙(문 67)
  - 유재홍(공 58)
  - 유재섭(공 65)
  - 유택선(문 58)
  - 유호근(문 73)
  - 육순재(의 63)
  - 윤영선(의 57)
  - 윤인숙(간 63)
  - 윤중수(약 66)
  - 윤철(문 54)
  - 윤현남(공 64)
  - 윤희정(문 59)
  - 이강욱(공 70)
  - 이강홍(상 60)
  - 이명중(공 72)

- 이명준(공 72)
  - 이문봉(미 76)
  - 이상근(상 84)
  - 이상무(의 56)
  - 이상원(농 62)
  - 이성구(약 56)
  - 이승일(대 66)
  - 이영일(의 60)
  - 이영재(상 58)
  - 이영주(농 83)
  - 이영희(미 68)
  - 이영대(약 63)
  - 이유성(사 57)
  - 이재덕(법 60)
  - 이재진(의 59)
  - 이진구(농 60)
  - 이정은(의 58)
  - 이중석(상 57)
  - 이중현(법 51)
  - 이중호(의 63)
  - 이태안(의 61)
  - 전성진(사 54)
  - 전병삼(약 54)
  - 정동성(상 58)
  - 정화웅(사 61)
  - 조규명(의 59)
  - 조명주(약 72)
  - 조대영(공 61)
  - 조중수(공 64)
  - 조태환(상 56)
  - 주보돈(의 58)
  - 주보일(공 50)
  - 차국만(상 56)
  - 차수만(약 71)
  - 최영태(문 67)
  - 최정용(사 63)
  - 최현우(농 58)
  - 최영우(법 69)
  - 한병웅(문 71)
  - 한승준(간 70)
  - 한영수(의 61)
  - 한태진(의 58)
  - 합중근(간 66)
  - 허병렬(사 40)
  - 허성현(의 53)
  - 허영자(약 63)
  - 허우성(상 63)
  - 허유선(생 83)
  - 허정원(사 63)
  - 현영수(음 61)
  - 현준길(의 58)
  - 홍정표(음 67)
  - 홍중만(공 64)
- ### 뉴잉글랜드
- 김기남(간 67)
  - 김만우(약 56)
  - 김민수(수 61)
  - 김부근(의 52)
  - 김선희(약 59)
  - 김정선(문 66)
  - 김형철(음 57)
  - 박중근(의 56)
  - 박승중(의 56)
  - 박수안(의 59)
  - 윤상래(수 62)
  - 이영자(미 60)
  - 이강원(공 66)
  - 이규진(약 60)
  - 이기용(공 57)
  - 이영인(사 74)
  - 이의인(공 68)
  - 이중삼(문 54)
  - 정용복(공 58)
  - 정정록(의 60)
  - 주창중(의 50)
- ### 라스베가스
- 김영중(치 66)
- ### 룩키마운틴스
- 위장호(의 67)
  - 표한승(치 58)

- 이명준(공 72)
  - 이문봉(미 76)
  - 이상근(상 84)
  - 이상무(의 56)
  - 이상원(농 62)
  - 이성구(약 56)
  - 이승일(대 66)
  - 이영일(의 60)
  - 이영재(상 58)
  - 이영주(농 83)
  - 이영희(미 68)
  - 이영대(약 63)
  - 이유성(사 57)
  - 이재덕(법 60)
  - 이재진(의 59)
  - 이진구(농 60)
  - 이정은(의 58)
  - 이중석(상 57)
  - 이중현(법 51)
  - 이중호(의 63)
  - 이태안(의 61)
  - 전성진(사 54)
  - 전병삼(약 54)
  - 정동성(상 58)
  - 정화웅(사 61)
  - 조규명(의 59)
  - 조명주(약 72)
  - 조대영(공 61)
  - 조중수(공 64)
  - 조태환(상 56)
  - 주보돈(의 58)
  - 주보일(공 50)
  - 차국만(상 56)
  - 차수만(약 71)
  - 최영태(문 67)
  - 최정용(사 63)
  - 최현우(농 58)
  - 최영우(법 69)
  - 한병웅(문 71)
  - 한승준(간 70)
  - 한영수(의 61)
  - 한태진(의 58)
  - 합중근(간 66)
  - 허병렬(사 40)
  - 허성현(의 53)
  - 허영자(약 63)
  - 허우성(상 63)
  - 허유선(생 83)
  - 허정원(사 63)
  - 현영수(음 61)
  - 현준길(의 58)
  - 홍정표(음 67)
  - 홍중만(공 64)
- ### 미네소타
- 남세현(공 67)
  - 남성인(공 88)
  - 변우진(문 81)
  - 양성택(상 63)
  - 성우진(치 87)
  - 오동호(의 66)
  - 오용환(약 68)
  - 우규환(사 60)
  - 우상영(상 55)
  - 원인숙(문 67)
  - 유재홍(공 58)
  - 유재섭(공 65)
  - 유택선(문 58)
  - 유호근(문 73)
  - 육순재(의 63)
  - 윤영선(의 57)
  - 윤인숙(간 63)
  - 윤중수(약 66)
  - 윤철(문 54)
  - 윤현남(공 64)
  - 윤희정(문 59)
  - 이강욱(공 70)
  - 이강홍(상 60)
  - 이명중(공 72)
- ### 미시간
- 강신조(공 62)
  - 김재식(의 61)
  - 김정화(음 56)
  - 김희주(의 62)
  - 남성희(의 56)
  - 박천자(사 64)
  - 오동환(의 65)
  - 이중수(사 88)
  - 윤효윤(의 63)
  - 이성길(의 61)
  - 이성길(의 65)
  - 이정화(음 56)
  - 이재승(의 55)

- 조문희(공 56)
  - 조병권(공 64)
  - 하계현(공 64)
- ### 북가주
- 강재호(상 57)
  - 강정수(문 61)
  - 권오형(사 61)
  - 김광환(공 63)
  - 김명환(문 67)
  - 김옥경(음 69)
  - 김은용(공 62)
  - 김현영(공 64)
  - 김희경(음 73)
  - 남광순(음 64)
  - 노상규(공 60)
  - 민병덕(상 69)
  - 박경우(상 63)
  - 박서규(법 54)
  - 박성수(공 59)
  - 박영욱(사 55)
  - 박정규(간 76)
  - 손창순(공 69)
  - 정동성(상 58)
  - 심영춘(수 64)
  - 안호삼(문 58)
  - 오명주(간 77)
  - 온기철(의 65)
  - 위장중(의 67)
  - 유승일(의 59)
  - 윤성희(사 58)
  - 이강우(문 59)
  - 이민영(문 57)
  - 이성원(공 65)
  - 이은수(사 64)
  - 이정남(공 63)
  - 이창환(공 56)
  - 임승배(문 66)
  - 임정란(문 76)
  - 전병림(공 54)
  - 정규남(공 52)
  - 정유석(의 58)
  - 정지성(상 58)
  - 정춘임(간 67)
  - 조대목(사 60)
  - 천동우(공 63)
  - 최경선(농 65)
  - 탁은숙(문 54)
  - 한성봉(수 67)
  - 홍병의(공 68)
  - 황동하(약 65)
- ### 샌디에고
- 김영호(사 56)
  - 오계환(공 64)
  - 이문상(공 62)
  - 이영진(간 77)
  - 이휘영(법 59)
- ### 시카고
- 고병철(법 55)
  - 김강중(약 69)
  - 김동회(공 66)
  - 김영운(문 65)
  - 김성일(공 68)
  - 김승주(간 69)
  - 김용주(공 69)
  - 김윤하(공 66)
  - 김인섭(문 68)
  - 김정수(문 69)
  - 김정주(문 60)
  - 김정화(문 61)
  - 김현우(문 56)
  - 김호범(상 69)
  - 남성희(의 56)
  - 노영일(의 62)
  - 민영기(공 65)
  - 박명기(농 61)
  - 박정일(의 61)
  - 박중희(의 69)
  - 박창우(공 56)
  - 서상현(의 65)
  - 소진문(치 58)
  - 송재현(의 46)
  - 신석균(문 54)
  - 안신훈(문 61)
  - 연경자(약 65)
  - 오명자(간 60)
  - 유기정(간 72)
  - 윤경순(사 61)
  - 윤덕상(치 62)
  - 안영희(문 57)
  - 이건정(공 69)
  - 이덕수(문 58)
  - 이동규(공 75)
  - 이불수(간 69)
  - 이소희(간 68)
  - 이승자(사 60)
  - 이시영(상 46)
  - 이영선(수 56)
  - 이영우(문 66)
  - 이윤락(공 48)
  - 이중수(문 76)
  - 이정일(농 57)
  - 이중일(의 65)
  - 임복경(문 56)
  - 임영신(의 52)
  - 임현재(의 59)

- 장세근(의 57)
  - 장윤일(공 60)
  - 정승규(공 60)
  - 조대현(공 57)
  - 진보린(약 56)
  - 최대환(의 53)
  - 최희수(문 67)
  - 최재훈(간 63)
  - 한익일(공 62)
  - 함성택(문 55)
  - 홍성일(약 57)
  - 황치홍(문 65)
- ### 알레스카
- 윤재중(농 55)
- ### 오레곤
- 계지영(문 60)
  - 김상순(상 67)
  - 박희진(농 78)
  - 최용성(의 55)
  - 한국남(공 57)
  - 한영준(사 60)
- ### 오하이오
- 김동광(공 62)
  - 김태웅(의 61)
  - 서의원(공 66)
  - 송용재(의 63)
  - 이수자(공 62)
  - 이영웅(의 56)
- ### 워싱턴DC
- 강길중(약 69)
  - 고무환(법 57)
  - 곽명수(문 65)
  - 권철수(의 68)
  - 김내도(공 62)
  - 김동훈(법 56)
  - 김태희(법 52)
  - 김안정(문 59)
  - 김영희(공 73)
  - 김용덕(의 53)
  - 김영호(공 64)
  - 김용환(치 88)
  - 김중호(약 68)
  - 김현중(공 56)
  - 김원정(미 94)
  - 김희주(의 62)
  - 나연수(사 54)
  - 남종일(사 69)
  - 박영태(상 63)
  - 박영호(공 64)
  - 박용길(약 56)
  - 박인영(의 69)
  - 박홍우(문 61)
  - 이영진(간 77)
  - 이휘영(법 59)
- ### 캘리포니아
- 김기현(문 52)
  - 마동일(의 57)
  - 이법세(의 63)
  - 이종영(음 58)
  - 정신호(자 78)
  - 한광수(의 57)
  - 홍훈(자연 75)
- ### 커네티컷
- 김기훈(상 56)
  - 라찬국(문 60)
  - 신경호(의 57)
  - 이규양(문 62)
  - 이내원(사 58)
  - 최창승(의 52)
  - 최창승(의 58)
  - 홍성휘(공 56)
- ### 콜로라도
- 이정화(의 61)
- ### 테네시
- 김경덕(공 75)
  - 서갑식(공 70)
  - 임효순(간 71)
- ### 텍사스
- 박석규(간 59)
  - 박유미(약 62)
  - 박진성(의 67)
  - 박태우(공 64)
  - 배영섭(의 54)
  - 송유한(문 73)
  - 유한창(공 69)
  - 유환(농 56)
  - 이경화(공 56)
  - 이석호(농 78)
  - 전중희(공 56)
  - 조진태(문 57)

- 진기주(상 60)
  - 천양곡(의 63)
  - 최관일(공 54)
  - 최성호(문 58)
  - 최용천(의 53)
  - 최희기(공 71)
  - 황영규(공 61)
- ### 플로리다
- 김동한(문 53)
  - 김성준(의 55)
  - 김재서(의 66)
  - 변중해(법 58)
  - 신재무(사 77)
  - 안승적(농 59)
  - 양용관(수 62)
  - 윤석진(문 64)
  - 윤태근(상 69)
  - 이길승(상 57)
  - 이순모(공 56)
  - 이양춘(공 52)
  - 이원섭(농 77)
  - 이희백(의 55)
  - 장대홍(공 65)
  - 장현길(공 60)
  - 전병택(법 65)
  - 정영자(사 56)
  - 최준한(농 58)
- ### 필라델피아
- 강준철(사 59)
  - 고영자(치 63)
  - 김정숙(사 53)
  - 김경숙(문 59)
  - 김영희(가 71)
  - 김국간(치 64)
  - 김규화(상 63)
  - 김성천(농 64)
  - 김재술(약 68)
  - 김정현(공 68)
  - 김주진(법 54)
  - 김진우(공 62)
  - 김현영(수 58)
  - 김훈(의 65)
  - 문대욱(의 67)
  - 배성호(의 65)
  - 서중민(공 64)
  - 성기호(상 59)
  - 성정호(약 59)
  - 송성규(공 50)
  - 송성익(문 59)
  - 신선자(사 60)
  - 심원섭(의 62)
  - 안세현(의 69)
  - 안종열(미 81)
  - 오진석(치 56)
  - 윤정나(음 57)
  - 이규호(공 56)
  - 이만택(의 52)
  - 이성숙(생 74)
  - 이승광(의 63)
  - 이지준(미 57)
  - 전무식(수 61)
  - 전방남(상 73)
  - 전희근(의 54)
  - 정덕준(상 63)
  - 정용남(문 60)
  - 정태광(공 74)
  - 정홍택(상 61)
  - 조영호(음 54)
  - 조정현(수 58)
  - 조화연(음 64)
  - 주기목(수 68)
  - 차호순(문 62)
  - 최중무(상 63)
  - 최현태(문 62)
  - 한동휘(문 57)
  - 한동오(대 69)
- ### 하와이
- 김달욱(사 55)
  - 김윤진(공 50)
  - 안은식(문 55)
  - 이재현(수 61)
  - 최경윤(사 57)
  - 하인환(공 56)
- ### 하트랜드
- 김경숙(가 70)
  - 김용환(공 71)
  - 박태우(공 64)
  - 이상강(의 60)
  - 정민재(농 70)
  - 최은관

###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u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용(사73)	200
구철희(의78)	125
권기상(대72)	105
김동석(음64)	200
김병연(공68)	200
김새담(법55)	25
김영(수63)	500
김영봉(사60)	200
김영중(치66)	75
김영희(간54)	50
김은숙(미62)	1,000
김은중(상59)	400
김종섭(법66)	100,000
노명호(공61)	20,000
노진걸(사70)	200
박우선(공57)	500
박원준(공53)	200
박은숙(미62)	200
박중수(수58)	12,000
박혜란(음72)	300
방석훈(농55)	500
성주경(상68)	200
손영아(음)	15
송영두(공59)	200
신영찬(의63)	200
안혜정(생77)	200
오찬수(약57)	200
오홍조(치56)	50
이명선(상58)	500
이법식(공61)	375
이병준(상55)	3,000
이소희(의61)	75
이장길(치63)	50
이창신(법57)	500
익명(문66)	1,000
장동석(문66)	200
전낙관(시60)	75
전원일(의77)	75
정균희(의65)	10,000
정신(대92)	1,000
정재훈(공64)	260
최용완(공57)	100
최종권(문59)	220
최진석(법64)	25

한귀희(미68)	2,000
한흥택(공60)	200
<b>뉴욕</b>	
강에드워드(사60)	200
강창홍(의63)	50
고애자(음57)	50
권영국(상60)	200
김영천(약72)	1,000
김명철(공60)	200
김완주(의54)	75
김은희(간78)	200
김종원(사58)	50
김중권(의63)	200
리준무(음65)	200
문석면(의52)	200
박순영(법56)	75
서량(의63)	75
선종철(의57)	100
신응남(농70)	1,400
이강홍(상60)	200
이재덕(법60)	75
이전구(농60)	500
조남천(사59)	350
조태환(상56)	50
차수만(약71)	300
최한용(농58)	1,500
한승순(간70)	150
허선행(의58)	200
홍종만(공64)	200
<b>미시간</b>	
김희주(의62)	225
오동환(의65)	200
윤효윤(의56)	200
이성길(의65)	100
이정화(음56)	200
이재승(의55)	75
<b>뉴잉글랜드</b>	
윤상래(수62)	500
박중승(의56)	200
주창준(의50)	200
<b>북가주</b>	
한상봉(수67)	500
<b>샌디에고</b>	
이휘영(법59)	75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소진문(치58)	200
이영섭(수56)	75
이용락(공48)	1,000
정의철	250
최희수(문67)	100
한경진(상59)	200
<b>오레곤</b>	
김상순(상67)	200
<b>텍사스</b>	
이석호(농78)	200
진기주(상60)	500
황명규(공61)	200
<b>플로리다</b>	
임필순(의54)	200
조경호(의66)	200
<b>필라델피아</b>	
이만택(의52)	200
이승공(의63)	200
정태광(공74)	100
지흥민(수61)	200
<b>하트랜드</b>	
고 차봉희(의51)	500
이상강(의70)	10,000
최은관	500
<b>미네소타</b>	
문성인(공88)	50
<b>워싱턴</b>	
민영기(공65)	75
<b>조지아</b>	
정양수(의60)	25
김용건(문48)	200
<b>워싱턴DC</b>	
강길중(약69)	200
고무환(법57)	200
권철수(의68)	200
김동훈(법56)	200
김응환(치88)	200
남욱현(경84)	1,000
박평일(농69)	400
박홍우(문61)	200
백순(법58)	200

서윤석(의62)	200
석균범(문61)	200
석보환(사68)	200
오인환(문63)	600
유영준(의70)	175
이건형(수54)	25
이내원(수58)	75
이선구(문65)	275
이연주(치88)	200
정평희(공71)	200
조화유(문61)	75
<b>캐나다 밴쿠버</b>	
장희순(문75)	388
<b>캐롤라이나</b>	
한광수(의57)	500
<b>커네티컷</b>	
김기훈(상56)	200
최창승(의52)	200
<b>광고후원금</b>	
<b>남가주</b>	
강호석(상81)	240
고석자(인72)	600
김경무(공69)	400
김양희(음77)	3,700
김원택(공65)	240
김은중(상59)	600
김자성(의79)	1,500
김정빈(공66)	500
나두섭(의66)	200
나정자(간70)	400
미주동창회(11대)	1,000
미주재단	5,000
민일기(약69)	500
박수경(생84)	2,400
박제환(문75)	600
박찬호(공58)	300
서동영(사60)	240
서치원(공69)	2,500
안혜정(생77)	200
이기준(법54)	500
이범모(치74)	250
이상대(농80)	240
이원택(의65)	2,200

이종묘(간69)	240
임준택(상68)	400
정재훈(공64)	240
주영세(사59)	400
차민영(의76)	1,500
최용준(수81)	400
한효동(공58)	300
홍훈정(음70)	400
<b>뉴욕</b>	
김기택(수81)	240
김승호(공71)	1500
석창호(의66)	240
신응남(농70)	240
이전구(농60)	240
<b>워싱턴DC</b>	
남욱현(경84)	9,300
이내원(사58)	1,000
<b>모교발전기금</b>	
<b>남가주</b>	
박우선(공57)	300
박원준(공53)	700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100
<b>워싱턴DC</b>	
권철수(의68)	100
최재귀(미63)	300
<b>워싱턴주</b>	
이원섭(농77)	150
<b>장학기금</b>	
<b>남가주</b>	
박원준(공53)	300
한흥택(공60)	50,000
<b>시카고</b>	
이용락(공48)	300
<b>뉴욕</b>	
신응남(농70)	200
이강홍(상60)	500
<b>Brain Network</b>	
<b>시카고</b>	
이용락(공48)	200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55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워싱턴DC	2,000
필라델피아	1,000
시카고	1,200
조지아	800
오레곤	300
플로리다	300
오하이오	300
<b>우크라이나 기부금</b>	
<b>남가주</b>	
구상선	50
노명호(공 61)	1,000
이정남	200
이호진(간74)	100
서성범	3,000
안혜정(생 77)	300
한흥택(공60)	1,000
홍종화(약74)	500
<b>북가주</b>	
이장우(문72)	100
<b>뉴욕</b>	
민준기(공59)	100
조상근(법69)	1,000
<b>조지아</b>	
김용건(문48)	200
유성무(상66)	300
<b>오레곤</b>	
한영준(사60)	100
<b>워싱턴DC</b>	
최재귀(미63)	200
<b>커네티컷</b>	
유시영(문68)	500
<b>워싱턴</b>	
이길송(상57)	100
<b>시카고</b>	
재환수(사61)	200
<b>휴스턴</b>	
진기주(상60)	1,000
<b>캐나다 밴쿠버</b>	
장희순(문75)	99.77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Payable to SNUAA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 (인문대 83) imin@ir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c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 (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 (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양병원**

정균희 (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 (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 (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 (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 (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 (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 (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 (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 (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clee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 (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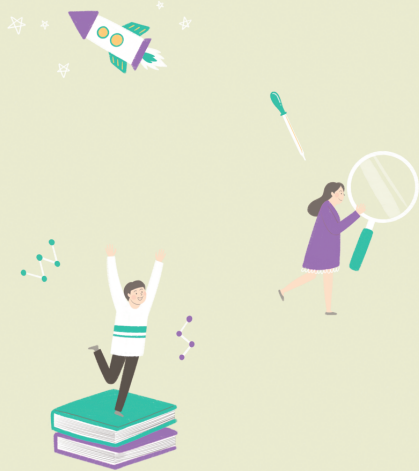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만만한 기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수혜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수 있었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을 바탕으로 꿈을 펼치고 학습을 이어가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후로는 여기에 달린 책임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제게 지원해주시는 것인 만큼, 저 역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라는 제꿈을 향해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입학했을때 부터 쪽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황속에서, 만약 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 하나를 더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선한 인재 장학생  
감사편지에서 발췌(2021.)



“나의 만만한 기부,  
어떻게 쓰일까요?”



STEP 1

후원참여

모든 후원자는 SNU Family로서 기부영수증, 감사카드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2

선한 인재 장학금 조성

매년 약 30억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소중한 기부금에 학교예산이 더해 집니다.

STEP 3

장학복지과 전달

후원금 전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인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조성되며 장학복지과로 전달됩니다.

STEP 4

매 월,  
선한 인재 장학금 지급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800명에게 매월 선한 인재 장학금 30만원을, 연간 360만원을 지급합니다.

STEP 5

열공!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고충을 덜어내고 학업에 충실하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STEP 6

FINISH!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mailto:america@snu.ac.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22-01]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약정금액: 일금		달러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mailto:kenneth@klgroup.cpa)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mailto: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mailto:snuf@snu.ac.kr)

##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중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우(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연(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포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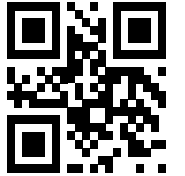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 이메일 news@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김철규(공대 60)  
cheolk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ial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o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용문(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nvan@gmail.com  
sphro17@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정무형(문 70) T: (213)458-4969  
chung0520@g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c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김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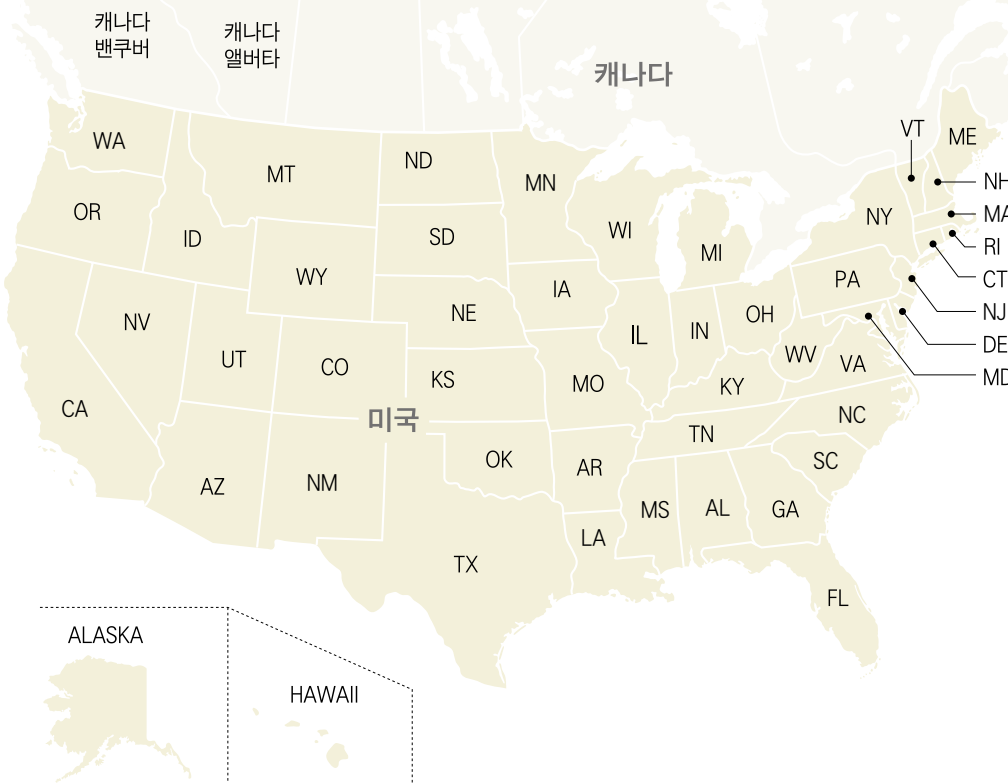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희(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오윤환(공대 56) T: (520)271-2601  
youn.oh@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차민영(의대76)

# 멋진 인생 시니어! 제2의 인생 항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뷰  
아름다운 시니어

건강하고 멋진 시니어 인생은  
저 이순재와 함께  
아름다운 항해로 시작하십시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시니어 분들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시니어 배우 이순재

**Fairway Asset Corporation** *You Can Trust*

남욱현(경영대 84)

“ 웃음 가득한 편안한 가정,  
**Fairway Asset Corporation** 이 함께합니다.”

가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기지 페이먼트,  
단순한 용자 서비스를 넘어서, 건전한 가정경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Fairway Asset Corporation** 은 워싱턴 지역 Lender 로서  
고객의 편의, 최저의 이자율, On Time Closing Service 를 위해  
License 를 갖춘 용자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facloan.com](http://www.facloan.com) NMLS#293044([www.nmlsconsumeraccess.org](http://www.nmlsconsumeraccess.org))

• VA License No. MC5452 • MD License No. 183469 • DC License No. MLB293044 • DE License No. 019327 • NC License No. L-169942 • GA License No. 60069  
• PA License No. ML48710 • NJ License No. 293044 • CA License No. 603J584 • IN License No. 27916 • CO License No. 293440 • AL License No. 22538  
• IL License No. MB 6761371 • FL License No. MLD1737 • TN License No. 176973 • TX License No. 293044

Maryland Office

**301-279-6969**

15400 Calhoun Dr. #120, Rockville MD 20855

Fairfax Office **703-204-0022**

Annandale Office **703-256-6002**

Centreville 지역 **703-371-8343**

Ellicott City 지역 **301-279-8662**

Silver Spring 지역 **301-456-9962**

DE & PA 지역 **267-275-9439**

NJ 지역 **201-888-7456**

NC 지역 **917-418-3587**

Richmond 지역 **703-309-5755**

GA(Atlanta) 지역 **404-578-1426**